

## 3만명만 더 하면!

### 동성애 교육 저지 위한 추가 서명 돌입

동성애 교육 저지를 위한 발의안 PRE와 Class Act 중 PRE가 지난 4월 16일 서명 운동이 마감됐지만 6월 11일까지도 서명 기간이 연장됐다. 원래 필요한 서명 수는 50만 4760 서명인데 서명 용지 오류, 서명자 이름 및 주소 오류, 서명 자체의 오류 등 당국이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무효 서명이 약 3만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전에 SB48 법안을 저지할 때에도 7천의 유효 서명이 모자라 결국 법안 반대 의견 자체가 묵살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엔 동성애 반대 단체들은 무효 서명이 발생할 시 법안 자체 폐기가 아닌 그만큼의 유효 서명을 다시 모아서 제출하겠다는 타협안에 당국과 합의한 바 있다.

이번 PRE의 경우 현재 3만 서명이 부족한 상태이지만 타협안에 의해 3만의 유효한 서명만 받아낸다면 정식 발의안으로 채택되고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이번

PRE 운동을 한인교계와 함께 주도한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의 한인대표 사라 김 사모는 "현재 한인들의 서명수가 2만 4천으로 집계된다"며 "한인교회의 협력에 크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남가주교회를 비롯한 한인교계는 2만 서명을 목표로 했었다. 김 사모는 "캘리포니아의 주류사회와 단체에 한인의 저력을 보여 준 계기"라고 자평했다.

김 사모는 "6월 11일까지 3만의 서명이 더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거룩한 수고를 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3만 서명 확보를 위해 다시 한번 노력하자"고 격려했다. 그녀는 "아직 서명을 안하신 분이 있다면 꼭 동참해 주시고, 서명을 이미 하신 분은 다시 또 서명해서 안된다"고 당부했다. 불법 서명으로 판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의) 323-735-3000(교협) 310-325-4020(주님세운교회)

토마스 맥 기자



우리가 한인교회의 미래

지난 5월 6일 어린이 주일을 맞아 나성영락교회 어린이들이 세례를 받았다. 한인교회의 미래를 걸머진 어린이들의 표정이 해맑기만 하다.

## 이 나라를 위해 제가 기도합니다

### 남가주 교계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 모여 합심기도



한인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뜻을 모아 미국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매년 5월 첫째 주 목요일은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National Day of Prayer)로 미국 전 국민이 각 계층의 국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날이다. 남가주교계는 3일 올림픽장로교회에서 미국의 국가 지도자들을 위한 연합 기도회를 열었다. 2012년 주제는 "ONE NATION UNDER GOD"이었다.

남가주교협, 남가주목사회, JAMA, 성시화운동 주최로 개최된 행사에는 에밀 맥 LA시 소방국 부국장, 올림픽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축복기도를 받기도 했다.

이날 성도들은 '자신과 미국의

죄에 대한 회개', '교회와 목회자', '성경적 가정의 회복', '공립학교와 각급교사들의 영적 회복', '대통령, 장관들과 11월 선거', '입법부, 사법부, 군지도자들', '175개국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 '고국' 등을 놓고 기도했다.

이날 예배는 사회 강순영 JAMA 부대표, 환영인사 및 개회기도 김영대 남가주목사회장, 성경봉독 허귀암 남가주목사회 총무, 설교 변영의 교협회장, 특별찬양 미주복음 방송선교협창단, 헌금찬양 최재훈 목사, 헌금기도 박남수 장로협 부회장, 광고 박세현 남가주교협 총무, 축도 한기형 미주성시화운동 상임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기도회에 참석한 한 성도는 "뜨겁게 미국을 위해 기도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토마스 맥 기자

## INTERVIEW

### 제자훈련에 목숨 건 목회

#### "머리가 아닌 삶으로"

올해로 36살을 맞이한 나성한 인교회, 결코 짧지 않은 이 세월 속에서 한때는 미주 한인교계의 어머니 교회로 인식될 정도로 전성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교회에도 시련이 찾아 왔고 거센 폭풍에 목회자와 교인들이 상처받고 고통받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교회를 우리는 다시 주목하고 있다. 기도와 말씀의 저력으로, 침체된 교회가 제 2의 부흥을 꿈꾸며 다시 일어 서고 있기 때문이다.

"교인은 많으나 신자는 적고, 신자는 있으나 제자는 없다"는 푸념을 자주 접하게 되는 이 시대에, 나성한인교회는 말씀의 진리를 삶으로, 그리고 가슴으로 살아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양육하고 제자화 하는 데에 '올인(All in)'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적인 개혁을 넘어 사회 문화를 변혁하고 지역사회까지 변화시켜 내고자 사동을 걸고 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 하나님은 김성민 목사를 사용하고 계신다.

고3 때 LA로 이민 온 15세 목회자인 김 목사가 이 교회에 부임한지 이제 겨우 1년 4개월 지났다. 아직 적응도 채 못했을 법도 한데, 벌써부터 부흥을 위한 전초전 격으로 제자훈련에 목숨



김성민 목사

걸고 일주일 내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에 따르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마28:19)는 말씀을 근간으로 하는 제자훈련은 교회만큼이나 사회를 위한 것이며, 교인만큼이나 비신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목회 일선에서 유독 제자훈련에 정성을 쏟는 김 목사는 교인들을 그저 소파에 앉아서 멍하게 귀만 쫄이는 사람들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된 선수로, 농부로, 군사로 만들어 내는 게 꿈이라고 한다.

그를 만나 최근의 근황과 생생한 목회 현장 이야기를 들어

→ 2면에 계속

**TAX 문제 전문** 자신동결 및 은행구좌 차입해결, 일리세금삭감, 세무감사내비 전 IRS 행정관, 감사관, 수사관 40년 경력의 세법전문가, CPAs

| Clients              | Case (Dec/11-Jan/12) | Results                         |
|----------------------|----------------------|---------------------------------|
| Mr. Hwang, W         | IRS \$62,317         | 합의 \$8,218                      |
| Mr. Lemmonier, H     | FTB \$118,874        | 합의 \$1,700                      |
| Ms. Wilson, M        | IRS \$450,190        | 합의 \$20,160                     |
| Mr. Kim, H (C. Corp) | BOE                  | Sales Tax Audit Audit Dismissed |
| Mr. Rogers, A        | IRS \$327,280        | Levy lifted & \$500/mo          |
| Mr. Farley, C        | IRS \$3,112,350      | 합의 \$0                          |

**TAX HELP TEAM (213) 248-0221**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귀국 자동차운송 업계최저 \$950**

무료 전화 877-580-2424 / 323-582-2424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 장재효 목사 초청 춘계영성집회

**약력소개**

- 총회신학대학원 졸업
- Faith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과정 이수
-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신교신학연구 과정 이수
- Trinity Theological Seminary 신학박사과정 이수
- Faith Evangelical Seminary 명예박사
-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 성령세계복음화협의회 총재 역임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역임
- 전국기도원 총 연합회 총재
- 성은동산(기도원, 경로원, 수양관) 원장
-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목회자 특별 세미나**

**주제: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받자!**

**집회 일정**

|                                  |                  |
|----------------------------------|------------------|
| 5월 4일(금) 엘에이 평화교회 (담임목사 김은목)     | 저녁 8시            |
| 5월 6일(일) 엘에이 평화교회 (담임목사 김은목)     | 오전 11시           |
| 5월 9일(수) 엠마오 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민섭)     | 저녁 7시30분         |
| 5월 10일(목) 세계의료선교사 육성재단 (대표 박승부)  | 특강 저녁 7시30분      |
| 5월 11일(금) 남가주 리더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 저녁 7시30분         |
| 5월 13일(일) 남가주 왕성교회 (담임목사 안경찬)    | 오전 11시           |
| 5월 14일(월) UCS신학대학 (총장 아브라함 최)    | 특강 저녁7시          |
| 5월 15일(화) UCS신학대학 (총장 아브라함 최)    | 특강 저녁7시          |
| 5월 16일(수) UCS신학대학 (총장 아브라함 최)    | 특강 저녁7시          |
| 5월 17일(목) 웨이스신학대학원 (양병삼 목사)      | 특강 저녁7시30분       |
| 5월 18일(금) 남가주광영교회 (담임목사 정우성)     | 저녁7시 30분         |
| 5월 20일(일) 하나로커뮤니티교회              | 오전 7시45분, 오전 10시 |
| 5월 25일(금) 웨스트레이크 한인교회 (담임목사 오정택) | 저녁7시             |
| 5월 27일(일) 하나로커뮤니티교회              | 오전 7시45분, 오전 10시 |

**주최** 남가주연목회

**일시** 5월20일(일)-21일(월)

**장소** 시온 수양관(세코야 팍)  
41666 Yokohl Valley Rd, Springville CA 93265

**문의** 213-739-0403

**주 관** : 국제성은복음선교회(International Holy Grace Gospel Mission)  
**후 원** : 남가주 한인목사회, 풍성한선교회, 엘에이 평화교회, 엠마오장로교회, 세계의료선교사 육성재단, 남가주리더교회, 남가주왕성교회, UCS신학대학, 하나로커뮤니티교회



나성한인교회 김성민 목사의 제자훈련 열정

부흥의 동력은 제자훈련 · 전도지향적 목회



-3대 목회자로 부임하셨는데 어떤 스타일의 목회를 지향하십니까?

1대 김의환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목회를 잘 하셨어요. 탁월한 카리스마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

해 성도들을 강하게 이끄셨던 분이세요. 이에 비해 2대 김영진 목사님은 부드럽게 케어하는 스타일로 목회하셨다고 할 수 있죠. 조용 조용하게 뒤에서 성도들을 서포트하는 스타일이랄까요. 저는 3대들

말하면서, 1·2대 목사님들이 잘 하셨던 부분들을 취합해서 밸런스를 잘 맞춰서 목회하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나성한인교회에 부임하신지 1년 4개월 정도 되셨습니까

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변화라기보다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성도들 마음 속 깊숙히 묻어 두셨던,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열정을 많이 끄집어 내시는 것 같습니다. 교인들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열정이

셨나요.

먼저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방법이야 우리 인간의 생각이 지요.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 주셔야 되는 일이지요. 먼저는 예배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에 따라 주일예배 외에 수요예배를 드

5-6년간은 '말씀의 체화(體化)'라는 화두를 놓고 씨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고 가슴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죠. 그래서 과연 내가 언제까지 목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회하는 동안만큼은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 나 스스로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의 삶을 살아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제자훈련을 도입해 성도들을 교인이나 신도가 아닌 진정한 제자로 양육해 보기로 마음 먹었죠. 그 때 이후로 교회 존재의 분명한 목적과 동기, 시대적 요청과 열정을 '제자 훈련'에 포커스를 맞추고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차 단계라 제가 다 양육하고 트레이닝하고 있습니다. 교회 차원에서 보면 변화라고 볼 수도 있겠죠. 교인들은 이걸 쫓아오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편으론 교인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제자훈련을 목회적 차원에서 도입하시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83년 LA로 이민 와서 나성한인교회에 다니면서 수년간 네비게이트 선교단체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선교단체를 통해 제자훈련을 받은 것이 제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때만 해도 저는 그다지 좋은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지만, 솔직히 말해서 대학교 때 '경건의 시간'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선배들이 "경건의 시간 해야 한다", "말씀 봐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그저 막연할 뿐이었어요. 모태신앙이라 어렸을 때부터 믿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충성스런 제자는 아

지역사회 변화시킬 저변 확대

부흥과 개혁에 대한 의기 차올라

대단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와서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떤 한 목회자를 보내실 때엔 그 사랑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바울이 할 분량이 있고 디모데가 할 분량이 있고 각자 나름의 분량이 있는 것처럼 말이지.

실은 서두부터 이런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나성한인교회가 과거에 80-90년대까지는 사람이 많아서 부흥했다기보다는 여러 면에 있어서 한인사회나 전체 미국 이민교회에 많이 알려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이민교회들 가운데 연합함과 시련이 있었듯이,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주춤했던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춤했던 기간이 길었다고 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신앙적으로 방황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고, 단지 좀 "기회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성도들 안에 숨어 있었던 열정들을 다시 새롭게 주셨다고 보는데, 끈집어 내시는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금요일에 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금요일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주일예배가 중요하지만, 금요일예배에 참석하시는 정도면 마음에 생각이 더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금요일예배를 살려서 그 불이 주일까지 이어지도록 하자는 데 초점을 뒀지요.

또 하나는 제자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이란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개인의 신앙성숙은 물론, 행복한 가정과 교회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제대로 된 제자훈련은 가정의 행복과 교회 성장의 첫 열쇠입니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제자훈련반에 160명 정도가 들어와 훈련받고 있습니다. 현재 7개 반을 진행하고 있고, 한 반당 3시간 가까이 훈련을 하니 일주일에 제자훈련에 소요되는 시간만 20여 시간이 됩니다. 결코 적은 시간은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말씀이 머리에만 맴도는 차원이 아닌, 삶으로 가슴으로 연결이 되게 하는 거죠.

실은 제 목회 여정 가운데 지난

**TOP MEDIA**  
교회설교 CD제작  
성가대 및 찬양대 소규모 앨범 제작  
교회에 필요한 모든 미디어용품 판매  
**TEL. 323-265-0244 FAX. 323-265-0250**  
3170 E. 11th St., Los Angeles, CA 90023  
www.topmediausa.com topmediausa@yahoo.com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료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736-6696 제시카**

전화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122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훈장받은 1등 명품 김영귀 알카리 이온수기**

**목회자 할인 프로그램**  
**무이자 12개월 할부 프로그램**

**산업훈장에 빛나는 김영귀 이온수기는**

- 1 특별히 좋은 물맛** 특허권을 가진 두개의 초정밀 8단계 정수필터
- 2 믿을 수 있는 제품** 자체 연구소와 공장을 지닌 30년 역사의 전문회사
- 3 거품없는 가격** 좋은 제품, 좋은 가격 공짜선물, 끼워팔기 없습니다.

**물의 과학화, 의료화 - 김영귀가 앞서갑니다.**  
알카리 4단계 / 산성 4단계 / 정수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A/S, 필터교환이 염려되십니까**  
30년 역사의 자체브랜드, 김영귀이온수기라면 안심할수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고 소비자가 추천하는 명품 알카리 이온수기  
한국과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이제 1등 명품 김영귀알카리 이온수기입니다

독일, 스위스, 러시아, 국제 발명 전시회에서 7회연속 금상 수상  
최고수준의 기술력 인정  
2011년 여성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대상

2011 소비자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생명과 건강 **동서바이오** **Tel (213)300-9762**  
955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06 (한인회관 옆 웨스턴과 산마리노) **대리점 모집중**



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하나님께서 그때 거기서 훈련받았던 것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리더들이 보기에 모범적이고 자랑할 만한 제자는 아니었는지 몰라도 그제 내 신앙 생활의 밑바탕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묵화하면서 내가 뭔가를 이뤄서 교인들에게 "당신들, 쫓아오시오" 이게 아니라, 제가 반의 반 걸음이라도 먼저 가 봤으니 "나를 좀 쫓아오시기 바랍니다"는 차원에서 제자훈련을 하는 거죠.

선교단체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교회관에 대한 깨달음도 많이 얻게 됐어요. 선교단체와 달리 교회는 모든 계층을 다 아우르는 곳이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

회 사라지던 부부가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 경건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결국 부부의 변화가 가정 전체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나중엔 교회 차원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처음 양육 과정에 들어가면 기도시간으로 30분을 주거든요. 그다음 반 '제자의 삶'으로 올라가면 기도를 1시간 시킵니다. 실은 그건 숙제예요. 그러다 보니 숙제하려고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숙제 하려고 30분 기도하는 거지요. 체크를 해야 하나까.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또 숙제 하려고 금요일에도 나와요. 처음엔 숙제하려고 주말에도 안 빠지고, 숙제하려고 목장에도 가요. 근데 그렇게 가다

는 조용한 예배, 2부 예배는 전통 예배, 3부 예배는 열린예배 이런식으로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1,2,3부가 다 같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은혜를 받아야 같은 교인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1,2,3부를 다 똑같이 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로요. 그러다 보니 한 지붕 밑에 언어별 두 회중이 존재해도 (영어 전담 목회자가 따로 있지만) 제자훈련은 같이 합니다. 연령대 별로도 따로 분리하지 않고 같이 하고요. 해 보니까 다들 아주 좋아하고 서로 가까워집니다.

60대 할머니가 고민을 이야기 하면서 눈물 흘리면, 젊은 청년은 공감이란 걸 법도 한데, 자기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이게 다 이해가 되고 은혜받는 거죠.

### 교회 존재의 목적과 뚜렷한 비전 제시

#### 가르침보다 본 보이기가 제자훈련 핵심

교회 선교단체만큼이나 뚜렷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한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나성한인교회든 어디든 제가 묵화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만큼은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고, 성도들을 잘 코칭하고 돕고 섬겨서 그 분들이 선수가 되도록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열정을 회복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드러나는 성도들의 변화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나요?**

먼저는 개인의 자세의 변화입니다. 죽어 있던 영적 감각들이 새롭게 살아나고, 가슴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자세가 바뀌게 되면, 예배의 자세도 달라지고, 자기 스스로를 대하는 자세, 말의 자세, 관계의 자세 등 모든 것이 바뀌는 거죠. 짧은 12주간의 제자훈련을 통해 개인의 자세가 바뀌면, 그 다음에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것이 부부의 회복입니다. 이게 참 귀해요. 제가 따로 "부부가 회복돼야 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저절로 가정의 회복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전에는 예배도 따로 드렸던 부부가 이제는 예배시간에 같이 나오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바쁘다는 핑계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일터로 향

하니 숙제가 다가 아니라, 어느 순간 내 삶에 자연스럽게 배어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간 생활하면서 7일을 참기가 너무나 안타까워 새벽예배에 나올 수 밖에 없고, 또 금요일에 나와서 은혜받고 주일까지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제자훈련을 할 때, 20대 · 30대 · 40대 등 각 연령에 따라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전에는 연령별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한 반에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훈련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반에는 10대 청년부터 70세 할아버지까지 계세요. 나눔 시간엔 각자 자기가 은혜 받은 이야기 나누는데, 서로간에 나눔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제자반에 한국어말이 서툰 2세들도 서너명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 2세권 사역이 부실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왜 여기서 배우고 싶어하는지 물어보니, 1세권의 영성을 자기도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연령대를 같이 하면 나눔이 어려울 것 같은데 오히려 안 그렇더라고요. 가족 같이 하나가 되더라고요.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1부 예배

목자와 목사가 엄연히 다르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목자가 돼 보면 목사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나가서 전도를 하고 외면을 당해 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려고 감치병을 싸 가지고, 반대편을 부쳐가면서 정성을 쏟고, 기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되는 거죠.

또한 제자훈련은 개인의 신앙의 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닌, 전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도하다 보면 성도들의 말이 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더욱 잘 대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가정을 잘 돌보는 등 제대로 살게 되는 거죠. 전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나니까요.

나성한인교회에 와서 보니 전도에 있어서는 지리적으로도 참 좋은 위치에 있어요. 불과 20여년 전만 해도 인근에 한터타운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왜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냐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지금 보니 오히려 이 지역이 LA의 한 가운데 위치해 있으니 교인들이 오시기에 편리합니다.

또 지경을 넓혀서 거미줄처럼 전도할 수 있고 그만큼 기도할 수 있기에 귀하다는 생각을 하구요.

다음 주부터 16개 전도팀(65명)이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오는 9월엔 40-50여개 팀으로 늘어나게 될 거 같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기대되는 건 160명이 12주동안 LA 전체를 전도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가슴 벅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스개소리로 교인들에게 "인구 폭발을 준비하자"고 말



합니다. 지금의 변화를 보면, 하나님께서 장래에 하실 일을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의 열정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게 하고 싶으신 일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목회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는 없지만, "목사님, 저 게을러서 전도 못했어요. 이제부터라도 전도 해야겠어요" 그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1.5세 목회자이십니다. 1.5세 목회자로서 1세 목회와 2세 목회는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1.5세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일찍은 1세라고 생각합니다. 1.5세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1세 목회를 오래동안 하면서 오히려 1세에 더욱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가끔씩 참 많이 다

르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1세 사역 또한 하나의 선교이고, 1세가 회복이 되어야 떠나간 2세들을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대략 33세부터 47살까지의 2세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그 아이들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들이 1세의 안 좋은 면만을 보고 떠나간 거지요. 1세 교회가 정체된 나머지 옛날 것만 고집하고 비분질적인 것에 치우진 모습들이 있다면,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개혁할 때에 떠나간 2세들이 1세들에 대한 좋지 못한 이미지를 벗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나성한인교회가 안고 있었던 과거 갈등 부분에 대한 봉합은 잘 되어가고 있는지요?**

100퍼센트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겠지만요. 처음에 와서 어려웠던 건, 딱히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중요한 결정들을 많

이 내려야 했어요. 제가 오기 전에 결정들을 다 내려줬으면 좋았는데 제가 와서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사림이 있기 전에 관계가 깨져버리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었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고마운 것은 교인들 안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이 있었겠지만 '우리 교회는 개혁되어야 하고, 부흥해야 된다'라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당회원들이 18명인데 그 분들이 지난 1년 4개월간 잘 참여주셨습니다. 제가 하는게 이전의 모습과는 영 다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엔 들어 보지도 못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목사가 하고자 하는 바를 잘 밀어 주는 당회 장로님들의 아름다운 서포트가 고맙고, 권사님들의 사랑과 안수집사님들의 열심에 고마운 마음입니다.

**-네 목사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하나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가입

전문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를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시인제,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한국어서비스 KEVIN YOO 24hr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그렉 (Greg) 직통: 213.278.5927 Office: 323.556.5386

##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킹퍼미트와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 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어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융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www.LAORT.edu

•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 New York : Forest Hills Tel. 718.261.5800

• Chicago : Skokie Tel. 847.324.5588

약도



# 여성목회자 위한 다양한 사업 기대돼

##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3대 회장에 백지영 목사 취임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3대 회장으로 백지영 목사가 오는 5월 20일 오후 5시 SL임마누엘선교교회(3912 Wilshire Bl. #400-408, Los Angeles, CA 90010)에서 취임한다. 그동안 여성 목회자들의 권익 신장에 앞장서 온 이 단체는 백 목사 취임과 함께 다양한 사업들로 남가주 교계에 강한 여풍(女風)을 불러 일으킬 계획이다.



(좌측부터) 박소피아 부총무, 강지영 사기, 백지영 회장, 지사론 부회장, 김영화 총무

우선은 남가주 교계 전체를 섬기기 위해 좋은 감사들을 초빙해 정기적으로 세미나와 부흥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한편, 영혼을 구원하고 성령과 기도 운동을 촉발할 계획이다.

그리고 남성 목회자에 비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쉬운 여성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사업을 구상 중이다. 그 첫번째는 장례 사업이다. 대부분 홀로 남은 여성 목회자들은 죽음을 준비하며 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여성목사회에서는

홀로 남은 여성 목회자들이 일 평생 헌신한 후, 마지막을 천국 환송예배로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여성목사회장(葬)으로 치러줄 계획이다.

백 회장은 "여성 목회자들을 위한 아름다운 장례 문화를 세워가는 것도 여성목사회의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회장은 솔로몬대학을 설립해 25년간 총장으로 봉직하고 있으며 SL임마누엘선교교회에서 35년간 목회했다. 특히 남가주한인목사회에 17년

동안 참여하고 이 중 7년을 부회장으로 섬긴 교계의 일꾼으로 꼽힌다. 그는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동료 목회자들을 돕는 일에 이번 회기동안 전격 헌신할 다짐을 하고 있다.

백 회장을 도울 지사론 부회장은 2011년부터 세브데이 힐링과워라는 치유사역 프로그램을 통해 영혼 구원 사역을 하고 있다. 그가 운영하는 열방선교사랑센터에서는 매달 집회를 통해 치유와 부흥의 사역이 이뤄지고 있다. 오는 13

일부터 18일까지도 예메랄드 온천장에서 특별 집회를 연다. 회비 없이 자발적인 헌금으로만 이 사역을 감당하며 수많은 사람을 치유한 역사를 갖고 있다.

강지영 사기는 한우리장로교회에서 단독목회한지 4년차다. 미주기독교방송에서 4년간 중보기도사역을 했으며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치유하는 일을 해 왔다.

김영화 총무는 유인신학대학교 학장을 맡고 있는 교육자다. 특별히 기독교 문화 사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는 이번 회기 총무를 맡으며 남가주 지역의 문화 사역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비전을 갖고 있기도 하다.

박소피아 부총무는 홈리스 사역과 십자가 행진 운동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며 회기 여성목사회의 대사회 봉사 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예정이다.

문의) 213-381-7755  
빅터 박 기자

# 한반도 평화와 대선 위한 성회 열린다

한반도의 평화와 이번 대선을 위해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합심해 기도하는 성회가 오는 5월 15일 만나교회(구 나성한인감리교회, 433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20)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신신목 목사)와 미주한인기독교지도자협의회 준비위원회(김종원 목사), 남가주교회, 남가주목사회, 남가주원로목사회가 함께 한다. 한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의 연합체들이 주최하는 행사만큼 그 영향력도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행사는 오전 7시 30분 예배로 시작된다. 이 예배에서는 박희민 목

사가 설교하며 곧 이어 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장)가 세미나를 인도한다.

기독교당 창당에 크게 기여한 전 목사는 이번 세미나에서 한반도의 영적 상황과 정치적 상황을 연결시켜 목회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함께 기도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 행사를 주도하고 있는 김종원 목사는 "한국과 미주의 지도자들이 분단된 조국의 평화와 대통령 선거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고 도전 받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목회자들을 초청했다. 이 행사에 회비는 없다.

문의) 818-448-4149, 818-842-5925  
빅터 박 기자

# 미주성결대 이사장에 조종곤 목사 취임



미주성결대 이사장 취임식을 마친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에 임했다.

미주성결대학교는 5월 5일, 사우스메이선교교회에서 제3대 이사장 이상복 목사 이임과 제4대 이사장 조종곤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거행했다.

류종길 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감사 예배는 부총회장 차광일 목사의 기도에서 김광렬 미주성결교회 총회장이 축어준 18장 17절에서 26절까지를 중심으로 "능력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지도자는 모로가 위촉장을 받았고, 허경삼 오렌지중앙교회 원로목사가 축도했다."

빅터 박 기자

이후 류종길 총장이 이임하는 이상복 이사장에게 ABHE 준회원 자격 획득과 학교 건물 구입에 크게 공헌한 것을 기리는 공로패와 함께 기념 반지를 전달했다.

이후 이기홍 사우스메이선교교회 원로목사의 격려사와 신임 조종곤 이사장의 취임사가 있었고, 이정근 명예총장의 축사가 있었다. 또 신임이사 이경원 목사, 이종길 목사, 피터 홍 목사, 최대영 장로가 위촉장을 받았고, 허경삼 오렌지중앙교회 원로목사가 축도했다.

빅터 박 기자

# "오늘만은 장애를 잊고" 제 23회 사랑의 마당축제 개최



장애인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 축제를 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가정의 달을 맞아 해마다 남가주에 많은 교회들이 연합해 발달 장애인들과 그 가족에게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마당축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지난 5일 Whittier Narrows Recreation에서 개최됐다.

이번 축제는 해피빌리지 미주한인봉사단(KAVC)과 선한정지교회(송병주 목사) 주관으로 열렸다. 송병주 목사의 설교로 예배를 드린 후, 식사와 게임 시간이 있었고 선한정지교회의 위십텐

스, 고수희무용단의 사물놀이와 부채춤 등 다양한 퍼포먼스가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 부서를 두고 있는 25개 교회와 관련 단체 11곳이 참여했고, 물품 후원 및 자원봉사 지원으로 13개 단체에서 참여해 훈훈한 사랑을 전하기도 했다.

ANC온누리교회 김의구 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성현경 목사 등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단체 사진촬영은 남가주사건작가협회에서 수고했다. 빅터 박 기자

# 은혜한인교회에서 가정의 달 맞이 효도잔치



은혜효도잔치에 참석한 어르신들이 즐겁게 식탁을 나누었다.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5월 8일 70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은혜효도잔치를 열었다. 약 250여명의 어르신들이 오전과 더불어 부채춤과 고전 무용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참석자 중 두 명의 권사는 성경을 암송하며 큰 은혜를 나누기도 했다.

교회 측은 행사 후 푸짐한 경품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항공권 등 선물을 전달했다.

행사 중 예배에서 한기홍 목사는 창세기 1장 27-28절 말씀에 근거해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신앙의 멘토들을 변함없이 존경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은혜한인교회의 핵심가치"임을 강조하며 격려와 도전의 시간을 가졌다.

토마스 맹 기자

# "오이코스는 바로 이것" 컨퍼런스

'오이코스'로 100명에서 12,000명으로 교회를 성장시킨 탐 머서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빅터빌 하이데르교회에서 목회 코칭 및 컨설팅 전문가인 미니스트리디렉이 주최하는 오이코스 컨퍼런스가 4일과 5일 개최됐다.

교회 사명과 전략, 추수에 집중하라, 예배와 오이코스, 오이코스 중심적인 교회, 새가족반 강의, 어린이 사역과 오이코스 등의 강연이 있었다.

한 관계자는 "모든 강연은 동시

통역이 제공됐고, 한인 목회자 150여명이 참여해 부흥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더 좋은 강사를 초청해 이런 집회를 자주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탐 머서 목사는 책 '오이코스'의 저자이기도 하며 한인들에게 '관계 전도 세미나'로도 많이 알려졌다. 오이코스는 헬라어로 '집', '가정'이란 뜻으로 나를 정기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

빅터 박 기자

# 남가주 한인 여성 목사회 제3대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싱그러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민족을 구한 에스더 여왕처럼 아름답고 우아한 여성 목사회에서는 여러 목사님들과 내외 귀빈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남가주 한인 여성 목사회 이취임 행사를 갖고자 하오니 부디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 시 : 2012년 5월 20일(주일) 오후 5시
- 장 소 : SL 임마누엘 선교교회 (3912 Wilshire Bl. #400-408, Los Angeles, CA 90010)
- 문의전화 : (213)381-7755, (323)708-9191



제3대 남가주 한인 여성 목사회 임원명단

| 회장단         | 분과위원장                |
|-------------|----------------------|
| 회 장 : 백지영   | 원 로 분 과 위 원 장 : 강정자  |
| 부회장 : 배순례   | 신 학 분 과 위 원 장 : 우정은  |
| 부회장 : 지사론   | 목 회 분 과 위 원 장 : 강정원  |
| 감 사 무 : 김문자 | 선 교 분 과 위 원 장 : 강순자  |
| 총 무 : 김영화   | 예 배 분 과 위 원 장 : 박소피아 |
| 부총무 : 박소피아  | 의료선교분과위원장 : 박소희      |
| 서 기 : 강지영   | 구 제 분 과 위 원 장 : 김문자  |
| 재 무 : 황그레이스 | 아 동 분 과 위 원 장 : 엄테레사 |
|             | 친 교 분 과 위 원 장 : 방대비  |
|             | 전 도 분 과 위 원 장 : 전용자  |
|             | 통 일 분 과 위 원 장 : 이수자  |
|             | 상 조 분 과 위 원 장 : 신영자  |
|             | 교육분과위원장 : 정모니카       |
|             | 홍 보 분 과 위 원 장 : 강남숙  |
|             | 구 제 분 과 위 원 장 : 김남숙  |
|             | 인 료 분 과 위 원 장 : 김성신  |
|             | 복 지 분 과 위 원 장 : 강주옥  |
|             | 사 모 분 과 위 원 장 : 황에스터 |
|             | 전 도 분 과 위 원 장 : 유여옥  |
|             | 설 의 분 과 위 원 장 : 최명자  |
|             | 가정사역분과위원장 : 김경희      |
|             | 상 담 분 과 위 원 장 : 이인석  |
|             | 봉 사 분 과 위 원 장 : 김에스터 |



**남가주 한인 여성 목사회**  
Southern California Korean Womens Ministers Association

3921 Wilshire Bl., #400-408, Los Angeles, CA 90010  
전화 (213)381-7755, 팩스 (213)487-7373



# 죄와 심판에 대한 역사적 고찰

로마서 2:5-12



장재효  
서울 성은교회 목사

롬 2:5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6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9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10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11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12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 1. 공의로우신 하나님

본문 6-8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하심은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상선벌악(賞善罰惡)의 원리로 판단 처리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광스럽고 존귀해질 수 있는 영생의 소망을 위해 회개하고 거듭난 심령이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 쓰임받으며 핍박과 환난 고통도 감내하며 기도하는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생을 주십니다.  
반대로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않고 자신의 명분이나 이권을 목적으로 불의와 죄악을 일삼는 자에게는 진노하시며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상응한 보응으로 처리하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 2. 인류의 역사 속에 있어 온 죄와 심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뿔불과 영경귀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지니라(창3:17-19)”

이 말씀 속에서 아담은 사탄의 하수인이 된 아내(이브)의 말을 영원히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중(信從)하여 범죄한 사실을 지적하시며 생명과 일 먹을 자격을 거두시고 그들의 죄값으로 저주 받은 땅에서 가시뿔불과 영경귀를 해치며 생계를 위해 노동을 해야 먹고 사는 인생고(人生苦)가 시작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하면 정녕 죽으리라 예고하신 대로 사망을 선고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4:2-12에 보면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열납되지 않았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가인이 자기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아벨 때문에 자기 제사가 거절당한 것으로 오해하고 그 아우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저주를 받아 밭 갈아도 효력을 얻지 못하며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형 가인의 시기와 질투로 죽인당한 아벨은 인류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25-26에서 아담에게 셋을 낳게 하심으로 죽은 아벨의 신앙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를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 중 남아(男兒)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엔 저주받은 가인의 후손과 하나님을 믿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아벨, 곧 셋의 후손으로 두 종류의 인맥(人脈)이 나뉘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도 육체의 본능 따라 호색함으로 신앙계보의 자손마저 타락함을 인하여 창세기 6:5-6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貫盈)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하심으로 첫사람 아담 부부로 시작된 인류 역사는 노아 때 물 심판으로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전멸하게 되고 육축이나 공중의 새들까지 먹지 못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옛세 동안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마치 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에게 관리권을 위임해 주셨는데 관리하였던 사람이 범죄하여 그것들도 사람의 죄 값에 동참하여 망하게 된 것입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네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칠 일이면 내가 사십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창세기7:2-5)”

창세기 10:1에서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들이 소개되는데 이제 이 지구상에는 이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하여 인류가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고 셈은 황인종, 함은 흑인종,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으로 3색 인종이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9:11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

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심으로 이 세상에 물심판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 3. 다가오는 불심판을 대비하라

“사랑하는 자들이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찌니 말세에 기롱(譏弄)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 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도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베드로후서 3:1-7)”

수제자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도 노아 때 물 심판으로 멸망했으나 앞으로 다가올 불심판이 예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는 온갖 이단사설(異端邪說)들이 교회 주변에 진을 치고 교인들을 미혹함으로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한 영혼들을 실족케 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단사설을 배척하고 경계할 것과 진리 정통하고 성령충만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결실로 불심판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감시다.

이 예비된 불심판은 예수님 재림 후 공중에서 있게 될 구원받은 성도들의 휴거로 어린양의 혼인 잔치 후 불신자들과 거짓신도와 적그리스도(Anti-christ)들까지 멸망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8절에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예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셨으니 첫째 사망은 영과 육이 갈라지는 것이라면 둘째 사망은 영혼과 육체가 심판부활로 재결합하여 흰 보좌에 앉으신 어린양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로 유황불 지옥에 들어감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9이하에서 재림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오며 그 날엔 이 지구가 불에 녹아 풀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되는데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지나 온 인류 역사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없어 멸하셨더라(창19:24-25)” 하신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탈리아의 폼페이 도시를 베르수비우스 화산을 폭발하게 하셔서 산등성이로 11km나 불물이 흘러가서 바삭 태워 버렸기에 잿더미를 건너면 폼페이는 세계적인 관광코스가 되어 그곳에 가 본 사람마다 바삭 타서 미라가 되어 있는 시체들과 건물들에 남아있는 벽화를 보며 그때 얼마나 음란 방탕한 도시였는가를 직감하게 된다고들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혹은 세계적으로 계속되어 왔으니 앞으로 올 불심판도 반드시 다가올터인즉 미리 서둘러 회개하고 구원얻도록 합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요5:24)”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 한국 선교 설교         |                      |                 |           |
|------------------|----------------------|-----------------|-----------|
| CBS TV           | 목요일 오후 2시 10분        | CTV TV          | 금요일 오전 6시 |
| 크리스천투데이          | 7면 설교                | 동영상 설교 / 인터넷 설교 |           |
| 경북기독신문           | 3면 설교                | 기도원연합신문         | 3면 설교     |
| 해외 선교 설교         |                      |                 |           |
| COX TV<br>워싱턴DC. | 화요일 오후 6시            | 목요일 낮 12시       | CTS TV    |
|                  | 토요일 오전 7시            | 주일 오후 10시30분    |           |
| KTN.DIGITAL TV   | 미서부 주일 새벽 5시 30분     |                 | 수요일       |
|                  | AM310 기본소리방송         | 화요일 오후 7시30분    |           |
|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 월요일 오전 11시20분~11시50분 | 미국 기독교일보        | 5면 설교문    |
|                  |                      |                 | 온라인 칼럼설교  |
|                  |                      |                 | 인터넛신문 설교문 |

성은교회 담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정중경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교회 회장.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 한반도 평화와 대통령 선거를 위한 한미 기독교 지도자 기도성회 및 세미나

만나교회(구.나성한인감리교회)  
주후 2012년 5월 15일(화) 오전 7:30

본 협의회 회장단 및 임원들이 금번 미주지역 방문에 즈음하여 남가주 기독교 교계 지도자들과 조찬을 나누며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와 12월 실시될 대통령 선거를 위한 특별기도성회와 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가지고자 하오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1. 일반사항

일시: 주후 2012년 5월 15일(화) 오전 7:30  
장소: 만나교회(구.나성한인감리교회)  
주소: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213)365-6191

## 2. 기도회 및 세미나

1부 예배설교: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 원로)  
2부 세미나: 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장)

## 3. 문의 및 기타

LA새문안교회 (818)448-4149, (818)842-5925  
조찬과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회비 없음)

주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신신목 목사    주관: 미주한인기독교지도자협의회 준비위원회 김종원 목사  
후원: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남가주한인목사회, 남가주원로목사회



# 가나안교회, 젊은이예배 신설 '비상준비'

## 다음 세대 담는 발판될 예배로 기획 중

벨플라워에 소재한 가나안교회가 젊은이예배를 신설한다. 이철 담임목사는 최근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1세와 2세가 균형을 이뤄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제 목회의 관심사"라 피력한 바 있다. 그는 "많은 젊은이들을 담을 수 있도록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교회의 주일 젊은이예배 시간은 오

후 12시 45분이다. 예배 참석 대상자는 20대에서 40대까지다. 교회의 허리에 해당하는 청년부를 활성화시켜서 그들의 자녀들까지 전도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다. 젊은이예배를 기획하고 있는 최광준 전도사는 "교회가 올해 40주년을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발판을 삼는 예배를 만들려고 한다"며 "시작

하는 단계에서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젊은이예배를 개설해 전도의 문으로 활용 할 것이다. 예배는 찬양과 말씀, 그리고 찬양의 순서로 간편한 스타일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주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문의) 562-866-0980

토마스 맵 기자

# 성경 말씀 자녀들 심령에 심는다

## 삼성장로교회 성경 만독 대행진에 자녀도 동참



삼성장로교회가 성경 만독 대행진 행사의 일환으로 어린이들의 성경 일독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주님께 드리는 성경 만독 대행진" 등 성경 읽기에 앞장서고 있는 삼성장로교회에서 이번에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도 이 운동을 확산하며 우선적으로 일독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삼성장로교회는 지난 2006년부터 성인 성도들이 성경을 만독하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다. 이 교회 조관교 장로의 36독을 비롯해 다수의 성도들이 20독, 15독을 하며 현재 총 5백독을 향해 가고 있다. 성경 읽기 운동을 하며 교회에는 뜨거운 말씀과 부흥이 물결치고 있다는 것이 교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열기를 이어 삼성장로교회는 어린이들도 성경 읽기에 참여하게끔 독려하기 위해 일독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다.

신원규 담임목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의 혼란한 가치관 속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라고 있다. 위대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심어질 때 삶의 목적과 방향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성장할 수 있다. 성경만이 위대한 사랑을 낳을 수 있으며 다음 세대를 이어갈 섬기는 리더로서 비전을 갖게 해준다"고 강조했다. 삼성장로교회는 5월 1일 이 캠페인을 시작, 11월 30일까지 계속한다. 초등부부터 9학년까지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어린이의 온 가족이 자녀를 축복하고 권면하며 성경 일독을 돕는다. 교회 측은 일독을 한 학생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작은 상금과 메달도 준비하고 있다.

빅터 박 기자

# 한부모 가족에 따뜻한 사랑 전하는 축제

## 세리토스장로교회에서 오는 19일 예정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곳 저곳에서 가정의 달 행사를 할 때 이혼가정이나 사별가정들은 상대적인 빈곤감을 더욱 느끼며 서글픈 마음까지 들 수도 있다. 이렇게 홀로 청소년 또는 어린이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세리토스장로교회 한부모사역팀이 주최하고 FBM(가정을 세우는 사람들), 탈북신학교 가정사역팀이 주관하며 한인가정상담소, 한인복지센터, 아태법률센터가 협찬하는 한부모가족축제가 그 자리다. 19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세리토스장로교회(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한부모 가족을 위로하고 정부 보조나 혜택과 관련된 유용한 자료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LA카운티와 오픈카운티 부근 15개 이상의 교회에서 참석하게 되는 한부모

가족축제는 올해로 제16회째를 맞게 된다. 이번 행사는 이혼이나 별거, 사별 등으로 인해 영적, 심리적 또는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들이 회복을 경험해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활력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최측은 약 2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최측은 "고달픈 이면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고통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교인인건 아니건 한부모 가족이라면 누구나 환영한다"고 밝혔다. 참석자 전원에게 저녁식사와 푸짐한 상품이 증정되며 부모, 청소년, 어린이(10세 이하)를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1부 순서에서는 세리토스장로교회 최

준우 부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이어 아주사대학교 교수이자 가정사역자인 변명혜 교수가 홀부모의 정체성과 자아상에 관해 강의한다. 남성중장년 및 하프 연주가 있을 예정이며 웃음치료사 정건오 씨가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부 순서는 비디오 상영, 테이블 나눔 및 팀 발표, 간증, 수기 시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최측은 이날 행사를 앞두고 성인, 청소년, 어린이 부문으로 나눠 한부모 및 자녀 수기를 공모했으며 시상식은 행사 도중 진행될 예정이다. 성인, 청소년, 어린이 모두 장원에게는 각분야별로 1천 달러, 준장원에게는 5백 달러, 입상에게는 3백 달러의 상금이 주어진다. 또한 수기를 제출한 분들에게 한해서 1백불의 격려금도 지원된다. 참석 희망자들은 행사 당일 세리토스장로교회로 오면 되며 참가비는 5불이다.

빅터 박 기자

# 사우스베이 축구회 주최 교회대항 축구대회 열려



사우스베이 지역 축구팀이 경기를 통해 우의와 친선을 다졌다.

5일 사우스베이축구회(회장 이병주) 주최로 콜럼버스파크에서 제7회 교회대항 축구대회가 열렸다. 시합은 A조와 B조로 4개팀씩 나뉘어 진행이 되었고, A조에서는 사우스베이 선교교회가 우승했으며, B조에서는 미주서부장로교회가 우승했다. 왕중왕전에서는 미주서부장로교회가 우승을 차지했고, 페어플레이 팀으로는 이번 대회를 위해 지난 1년간 준비해 온 성 프란치스코 성당팀이 선정되었으며, 전체 MVP 선수로는 미주서부장로교회

의 윤대성 씨가 뽑혔다. 이병주 회장은 "매해 사우스베이 교민들의 우의증진과 체력단련을 통해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 다음 해에는 더 많은 교회가 참여해 더 큰 행사를 거듭 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회에는 대흥장로교회, 미주서부장로교회, 코너스톤교회,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토렌스조은교회, 사우스베이성교회, 성프란치스코성당, 샌디에고성당이 참여했다.

빅터 박 기자

# 방주교회 30주년 기념예배 드려

## 나눔사역으로 지역사회 변화시킬 것



섬김사역으로 LA에 사랑을 전하고 있는 방주교회가 30주년을 맞이했다.

미국 루터교단 소속 방주교회가 6일 30주년을 맞아 기념예배를 드렸다. 이날 오전 11시에 시작된 예배는 담임 김영규 목사의 인도 하에 드러졌으며, 문상익 목사

(전 콘코디아대학 부총장)가 설교를, 예수교장로회국제연합총회(UPCA) 경경총회장 김상우 목사가 축사를, 김명희 선교사가 특송을, 북음루터교회 김정환 목사가

축도했다. 1982년 교회 창립 이후 24년간 방주교회를 섬겨온 1대 차경진 목사 부부에 공로패를 증정하는 순서도 마련됐다. 방주교회는 1대 차경진 목사에 이어 2006년 2대 김영규 목사가 부임해 현재까지 시무하고 있다. 중점 사역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사역, 자바시장 복음화 사역, 노숙자 및 남미 노동자들을 위한 무료급식 사역, 무료 이민상담을 제공해 오고 있다. 김영규 목사는 30년을 맞이한 소감으로 "교회 성장이나 교인 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면서 "앞으로의 30년도 섬김사역을 통해 LA를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소: 3735 Hughes Ave. LA, CA 90034 전화: (310) 836-8342 웹사이트: www.arkofnoahchurch.org 정하나 기자

# 담임목사 청빙

**Albany, NY에 위치한 올바니 한인장로교회에서 담임목사님을 초청합니다. 본 교회는 PC USA에 소속된 교회이며, 자체성전을 가진 41년된 교회입니다.**

**가. 자격**

1. PC USA에 소속 또는 가입조건이 되시는 분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한국 또는 미국내 신학교에서 안수를 받으신 분
3. 2년이상 목회경력이 있으신 분
4. 미국 거주 및 취업에 법적인 문제가 없으신 분
5. 한국어에 능통하고, 영어구사에 불편이 없으신 분

**나. 제출서류**

1. 이력서(추천인 명단 3인 이상 포함)
2. 자기소개서(목회비전 및 신앙간증 포함)
3. 가족소개서(가족사진첨부)
4. 최종학교 증명서 및 목사안수 증명서 사본 각1부
5. 설교 테이프 또는 영상설교(가능하면 설교원고 첨부)

**다. 서류마감: 2012년 6월 15일**

**라. 서류제출처: 이메일접수 및 일반우편접수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1. 이메일: kpcalbany@pcusa.org
2. 일반우편: Nam Soo Lee, 23 Lincoln Mall, Schenectady, NY 12309
3. 문의사항: 이남수 장로 (518) 345-4887 또는 namsoo1212@gmail.com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본 교회에 대한 안내는 교회 웹사이트, www.kpcalbany.org에서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올바니 한인 장로교회

## 양로병원 노인들을 위한 찬송가 경연대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장애우사랑교회에서 12년째 양로병원 봉사를 하다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차매에서 벗어나고 외로움에서 이기기 위해 매일 찬송가를 암송함으로 할 일이 있다는 소망을 드리기 위한 찬양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사오니, 이 대회를 빛나게 하실 심사위원들(5명) 봉사자분들을 초청하오니 바쁘신 시간을 나누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시간**

• **장소: 중앙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6월 16일(토) 오전 10시 / 12월 15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1등** 1명에게는 100불 상당의 물품     **2등** 2명에게 각각 50불 상당의 물품  
**3등** 3명에게는 각각 30불 상당의 물품     \*\*\* 그리고 찬송가를 모두 암송한 분들에게는 10불 상당의 물품이 주어집니다.\*\*\*

\*상금 및 상품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체크이름: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 L.C.D

**협찬** 필그림 오케스트라, 남가주교회협의회, 남가주한인목사회, 남가주 총회예저부, 벨렝장로교회, 엘에이사랑의교회, Horizon신학대학교, 기독교일보, 한술종합보험, 크리스찬헬드, 라디오코리아, 마동환변호사그룹, 백보환의원, Allstar, Precision, 최진욱변호사, 재미남가주향해도도민회, Los Angeles Downtown Lions Club

**✦ 장애우사랑교회**

**☎ 연락처 : 213-705-0404 / Fax : 213-251-8930**  
주소: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 입양... 크리스천이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역

## 예수님께 입양된 우리, 이제 그 사랑으로 고아 입양해야 할 때

‘글로벌 고아사역을 위한 한국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가 1일 새들백교회(릭 워렌 목사)에서 한인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를 대상으로 개최됐다.

다양한 주제 강의와 발제에 이어 오후에 ‘다음 단계를 위한 제언’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한국입양보호회(MPAK)의 스티브 모리슨 대표, 서울 은누리교회 영어사역부 에디 변 목사, 새들백교회 고아사역부 엘리자베스 스타이피 대표, 제이슨 씨가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사회는 ‘고아를 위한 소망’ 설립자 폴 패닝턴 목사가 맡았다.

먼저 사회자는 변 목사에게 입양이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질문했다. 이유는 변 목사가 앞서 강연 시간에 입양이 복음과 직접적으로 연관됐다고 언급했기 때문. 변 목사는 “한국교회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길거리로 나가 전했다”며 “이제 한어권 예배에서 1만불을 기부하는 등 입양을 시작



입양 사역에 관한 토론이 진행 중이다. 제이슨 씨, 변 목사, 모리슨 대표, 스타이피 대표, 패닝턴 목사가 이 토론에 참여했다.

하는 단계다. 이는 마음이 열리고 선의의 도전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 한명 한명이 교회 문화와 한국 문화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은

핏줄을 주로 보는 문화인데, 나의 문화권과 예수님의 문화권이 있다 면 우리는 예수님 방식에 맞춰야 한다. 예수님 가정에 우리가 입양됐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했다.

이어 박봉은 모리슨 대표에게 넘어갔다. 한국인인 모리슨 대표는 10대 때 미국에 입양돼 NASA 수석연구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는 “성경은 주님의 적된자들

이 입양되는 과정의 이야기다. 한국은 유교 문화의 역사가 길고 기독교 문화가 짧다. 유교사상은 혈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여자의 죄 중의 하나가 애를 못 낳는 것이었다”면서 “우리는 하나님 가족에 입양됐다. 고아를 돌보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많은 한국 사람들은 아직 인지가 부족하다. 현재로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준비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부산 호산나교회의 경우, 입양 권장 운동이 전교회적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 교회 성도들은 현재까지 50명을 입양했다. 이 교회는 입양하는 것을 교회가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미국에서도 보기 어려운 모델이다”고 했다.

사회자는 “많은 교회들이 복음적인 교회가 되고 싶다 하면서 어떻게 고아를 신경쓰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제이슨 씨는 “교회가 ‘많은 사

역을 하면서 어떻게 고아사역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꼭 교회 자체가 아니라도 성도들 중에 고아사역을 향한 열정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며 평신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정중이 “미국에 결혼을 안하고 사는 싱글 여성들이 많다. 이러한 기독교 싱글 여성들이 입양을 원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다.

이에 스타이피 대표는 “입양되는 아이들은 모두 아픔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는 아버지, 어머니가 단순히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돌봄을 받을 건강한 가정이 필요하다”면서 “입양하고 싶은 마음은 소중하지만 목회자들은 아마 그런 가정이 입양아를 받아들일 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 경우 입양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이 사역을 도울 수 있는 길이 많다”고 조언했다.

토마스 멩기자

### “사회적 약자 고아 보호해야”

에디 변 목사, 글로벌 고아사역 컨퍼런스서 역설



에디 변 목사

“오늘날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소외된 자리에 있는 고아들을 돕는 사역에 교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적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에디 변 목사의 외침이다. 그는 현재 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고아를 지원하기 위해 HOPE Be Restored의 설립자이자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아를 돌보는 교회가 갖는 변화의 영향력’이란 주제로 20분에 걸친 스피치를 한 변 목사는, “복음의 모험들을 교회를 통해 보여줘야 한다”며 강력한 어조로 고아 사역에 대한 교회의 실질적 행동을 촉구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인 고아들을 위해 교회가 나서서 어떻게 도와줘야 하지 고민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회적 약자에게 가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입양은 아

비 없는 고아들에게 가정을 선물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 차원에서 입양을 권장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아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면서, 싱글맘에 대한 교회의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기했다. 한국에서 싱글맘들과 그들의 자녀를 케어하는 단체 ‘싱글 러브(Single Love)’를 창립해 이끌고 있는 변 목사는 “한국의 경우, 성교육의 부재에 기인한 혼전 성관계로 아이를 낳는 싱글맘 수가 20만명이나 된다”면서 “이들 싱글맘들이 아이들을 낳아 잘 기를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고아를 줄이는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싱글맘의 절반 가량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달 수입이 5백불에서 1천불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결국 재정난을 극복할 길이 없어 최후의 선택으로 아이들을 내다 버리게 되는데, 이 아이들에게 길을 내어주는 것이 입양이다.

변 목사는 교회가 고아 사역의 일환으로 싱글맘 사역을 강화할 뿐 아니라 정부에도 관심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한나 기자

### 가정 찾는 아이들 너무 많아... 목회자 움직임이면 성도 움직임이다

박형은 목사의 “우리 가정 입양 이야기”

강사로 초청된 박형은 목사(동양선교교회)는 “우리 가정의 입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오후 첫 강연을 펼쳤다. 박 목사는 6명의 아이를 두고 있고 그 중 2명이 입양 아이며 현재 한국에서 입양절차를 밟고 있는 막내를 곧 데려올 예정이다.

박 목사 사모 역시 한국에서 입양됐다. 이러한 가정환경 탓에 그는 입양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듯 보였지만 20여분의 짧은 강의시간 때문인지 아쉬워하기도 했다.

그는 “아내가 입양인 출신이지만 나는 사실 입양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다”며 “아내가 입양을 아무리 원해도 남편이 거부하면 할 수

가 없다. 가족 구성원이 다 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나중에 입양을 하자고 해서 당시엔 승낙을 했다”며 “결혼 후 출생이 네 명의 아이들을 낳아 ‘이제 입양을 말하지 않겠지’하고 생각했는데 막내가 4세가 되었을 때 아내가 말을 꺼내더라. 이미 아이들이 넷이나 있어 망설였지만 약속을 어길 수는 없었다. 입양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가슴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각 단계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모른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입양을 하기 전에 했던 걱정거리를 언급하기도 했다.



박형은 목사

그가 입양 수속을 밟고 이리저리 필요했던 돈이 2만4천불인데 당시 수중에 2천4백불도 없어 걱정하는 상황에서

아내가 말했다. 미국에서 차가 필요하면 돈을 빌려서라도 사지 않냐고 말이다. 그래서 그는 결국 돈을 빌려서 아이를 입양했는데 주님께서 여기저기서 돈을 채워 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기도 했다.

그에 의하면 자녀에게 가정을 주는 것은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이다. 그는 “사실 창세기 2장에 보면 자녀들은 결혼하면 다 떠나가는 사람들이다. 자녀에게 투자하는 것

은 손실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자녀가 주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 생각하면 어떤 것도 손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입양한 딸이 학교에서 입양을 감사하고 자랑하는 것을 볼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전세계에 가정을 찾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며 “목회자들이 움직이면 성도들도 움직인다. 생각만 하면 못한다. 실천하면 축복이 임한다”고 강조했다.

박 목사 외에도 이 컨퍼런스에서는 릭 워렌 목사, 스티브 모리슨 대표, 호산나교회 원로 최홍준 목사, 고아를 위한 소망 설립자 폴 패닝턴·로빈 패닝턴, 새들백교회 고아사역부 대표 엘리자베스 스타이피 등이 강의했다. 토마스 멩기자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성을 체험으로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증,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갈릴리신학대학 & 랭귀지스쿨**

GALILEE SCHOOL OF THEOLOGY & LANGUAGE SCHOOL

www.gsticedu.com

목회학석사 (M.Div.) 신학석사 (S.T.M.)  
목회학박사 (D.Min.) 신학박사 (S.T.D.)

SEVIS인가 대학, 자체 1-20일형  
ESL 프로그램 (음성학적 영어학습방법론을 개발)

Tel. 213-746-1004 / FAX. 213-746-5004  
1000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15

**Solution for Tomorrow**

**LASERVISION WORLD**  
www.laservisionworld.com

**무료 음향 영상 조명 컨설팅 및 System Check-up**  
문의 323.730.5050

**Blackmagic Cinema Camera**  
Featuring a wide 13 stops dynamic range, 2.5K resolution, EF & ZE lens compatibility, SSD recorder, RAW, ProRes and DNxHDI

**ATEM Television Studio**  
\$2,995 Body +Lens(Optional) \$995

**SONY NEX-VG20H**  
\$2,199

**Blackmagicdesign** | **vimeo** | **USTREAM**

저렴한 비용에 고화질 HD급 예배 중계 시스템을 설치 하실수 있습니다. Atem Television Studio 하나로 고화질 영상 녹화뿐만 아니라 실시간 인터넷 중계까지 All in one System 을 구축해 드립니다.

Laservision World / Laservision Structure & Engineering Inc. / www.ori.com / AVLgear.com  
1961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 Tel: 323-730-5050 Fax: 323-383-0257 contact@laservisionworld.com



# 신자가 가장 많은 나라 가장 적은 나라 어딜까?

### 시카고대학 내셔널오피니언리서치센터 발표

최근 시카고대학 내셔널오피니언리서치센터에서 “시대와 나라 별 신에 대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 신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를 발표했다. 이는 1991년부터 2008년까지 인터넷조사서비스 이프로그래밍으로 30여개국을 조사한 것이다.

이 조사 결과, 응답자 중 84%가 “신이 계신 것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고 한 필리핀이 가장 신자 비율이 높은 나라로 발표했다. 필리핀 국민 중 단 1% 미만만이 “신을 믿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조사 대상 국가 국민들에게는 신에 대한 믿음을 암시하는 여러 질문이 던져졌다. 제일 먼저 응답자가 무신론자인지, 불가지론자인지, 자연교도인지,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신자인지, 강한 믿음을 가진 신자인지를 알아 봤다. 그 다음엔 인생을 살아가며 언제 믿음의 변화를 겪었는지와 “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본다는 것”을 믿는지 등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보고서는 “많은 응답자들이 인생을 지나오며 신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조사된 국가 중에서 무신론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52%가 “신을 믿지 않는다”고 답한 구 동독(East Germany)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관계자는 “무신론자 비율이 높은 국가들은 사회주의 국가였거나 서북 유럽에 분포하는 국

가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면서 “무신론자가 적고 신에 대한 믿음이 강한 국가는 주로 개발도상국 이면서 가톨릭 중심 사회인 경우가 많았다. 이외 미국, 이스라엘, 키프로스(지중해 동부 섬)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영국의 경우 전체 국민의 37%가 “신을 믿는다”고 답했고, 미국 국민 중에서는 81%가 “신에 대한 항시적 믿음”을 드러냈다. 일본은 25%, 구 동독은 13%가 “신을 믿는다”고 말했다. 미국인 중 61%는 “신의 존재를 확신한다”고 답했지만, 이 중에서 3%는 자신을 어떤 종교에도 속해 있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국민 중에는 “신을 믿지 않는다”는 응답이 9%로 매우 적으면서도 정작 “신의 존재를 확신한다(혹은 신이 계심을 안다)”는 응답은 4%에 미치지 않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본복음주의선교사회의 리처드 추먼 총재는 “일본인들은 종교적이기보다 영적인 민족”이라며 “그들은 다양한 신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추먼 총재는 “일본 선교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독교 자체가 ‘서양 종교’라는 인식 때문”이라 지적했다.

한편 “신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믿음에 대해서는 필리핀 국민 중 92%가, 미국인들 중에는 65%가, 일본인 중에는 24%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권나라 기자

# 대형교회, 세상의 기술 뿐 아니라 시각까지 수용

### 서던침례신학교 앨버트 몰러 총장, 자유주의화 우려

미국의 보수 신학을 대표하는 캔터키주 서던침례신학교 앨버트 몰러 총장이 최근 한 칼럼을 통해 “미국 대형교회의 자유주의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교회가 다원주의화된 세상의 시각을 수용하면서 특히 동성애에 대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라고 했다.

몰러 총장은 “대형교회는 1970년대부터 본격 등장하기 시작, 현대 기독교의 주요한 추진 동력이 돼 왔다”면서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프리카·브라질·한국·호주에서 대형교회가 나타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19세기 찰스 스펄전 목사의 교회의 성장에서부터 대형교회의 기원을 찾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대형교회화 현상은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났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사회학자들이 따르면 미국의 대형교회는 교통신단과 기술의 발달로 교의 지역 인구가 폭발적 증가를 이루며 대형 소규모 교회가 출현한 것과 같은 시기에 탄생했다”고 덧붙였다.

몰러 총장은 “조기 미 대형교회는 미국 기독교의 보수적 흐름을 이끈 선두주자였다”면서 “미교회협의회(National Council of Churches)의 연구원인 딘 켈리가 1973년 발간한 책에 따르면, 미국에서 자유주의 성향의 교단은 교세가 급격히 감소하는 데 반해, 보수주의 교단의 교세는 급속히 증가해 대형교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침례교단 내에서 성경무오설 등 보수 성향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던 1979~1990년 사이에도, 보수주의 대형교

회 목회자들이 연달아 총회장을 역임하며 질서를 잡아왔다”면서 “그러나 오늘날 많은 대형교회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처음부터 세상의 새로운 기술을 가장 먼저 수용해 왔던 것은 대형교회들이었다. 요즘도 예외일 수 없어서, 디지털 기술 및 소셜 미디어 문화를 대형교회가 가장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신학 부분에서는 어떤가? 미국 사회에서 확연히 나타나는 세상의 시각을 보라. 버지니아주 린데 제임스 데이빗 헌터 교수에 따르면, 문화의 상당 부분이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필수적(혹은 유일한 길)’이라는 메시지에 대해 적대적 입장을 펴는 의견들이 사회에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는 세상과 성경(진리)의 타협점을 찾는 대형교회 목회자들도 있음을 지적하면서 “플로리다주의 한 대형교회 목회자가 얼마 전 이 지역 대형교회들이 성경적인 성(性) 역할에 대한 문제를 내팽개치고 있다”는 말을 했다. 또 ‘성경적으로 철저하게 따라가는 것은 더 이상 교회 성장을 가져올 수 없음’을 조언하기도 했다는 충격적인 말도 전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몰러 총장은 “어떤 죄나 죄인의 문제가



앨버트 몰러 총장

구원의 능력 밖에서 다뤄질 때 복음의 진리는 강할 당한다. 또 성경이 말하는 죄를 작금 크건 축소시키는 행위에 의해서도 복음은 강할 당한다”면서 “현 문화적 흐름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장벽이 되고 있다는 사실과, 교회에 타협을 향한 유혹이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유혹 중에 하나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를 왜곡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자유주의 신학의 근원”이라면서 “자유주의 신학자인 해리 에머슨 포스틱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들의 메시지가 변화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현대 사회에서 모든 지적 신뢰성을 잃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는데, 결국 그는 복음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메시지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몰러 총장은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신 선교 대서명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제자 삼으라고 말한다. 제자는 교회에 예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 모두를 완전히 전파할 때만 받은 죄인인 나 자신에 대한 겸손을 가지고 진리를 수용하되, (동성애를 대하는 데 있어) 은혜와 진리에 대해 완전한 가르침을 이끌어 내야 한다. 대형교회는 다시 한번 미국 기독교의 변화를 주도하는 흐름의 선두에 서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이 새로운 자유주의가 아닌 신실함으로 미국 기독교를 인도해 나가길 기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권나라 기자

# 한인교회 예배드리는 미국교회서 총격사건

### 목사 포함 2명 사상, 원한관계 아닌 우발범죄인 듯

기쁨의교회(담임 최한용 목사)가 지난 2010년부터 예배처로 사용하고 있는 메릴랜드주 엘리콧시티 소재 성베드로성공회(St. Peter's Episcopal Church)에서 지난 3일 오후 총격사건이 일어나 1명이 죽고, 1명이 크게 다쳤다고 볼티모어선 지가 4일 보도했다. 피해자 모두 여성이었으며, 범인은 총을 쏜 후 자살했다.

피해자는 성베드로성공회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메리 마가리트 콘 목사와 행정 비서인 브렌다 브루잉턴 씨로 알려졌다. 브루잉턴 씨(59세)는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콘 목사(62세)는 메릴랜드대학 트라우마센터로 옮겨졌으나 생명이 위중한 상태다.

범인 더글라스 프랭클린 존스(56세)는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 죽은 채 발견됐으며 근처에서 권총이 발견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행히 사고 당시 교회에는 두 명 외에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워드카운티 경찰국 서리 루엘린 대변인은 “푸드뱅크를 받기 위해 정기적으로 교회를 왔던 범인은 최근 부쩍 시비가 되고 공격적인 성향을 띠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 측은 이번 사건을 원한관계로 인한 것이기보다는 범인의 분노 조절 문제로 인한 우발범죄로 보고 있다.

사망한 피해자 브루잉턴 씨는 아들 둘을 둔 어머니로, 약 4년 전부터 교회에서 일해 왔으며 약 2년 전에는 교회 부설 프리스쿨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다. 피해자 콘 목사의 경우는 메사추세츠 캠퍼릿지 성공회신학대학교를 졸업했으며, 2009년 메릴랜드 로울라대학교에서 상담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찰에는 이날 오후 5시 20분 경 사건이 접수됐으며, 교회 관리인이 건물 안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 911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한인교회가 예배당을 빌려 사용하고 있



볼티모어선 지에 실린 총격 기사 캡처

는 교회에서 일어난 범죄라 한인들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한편, 이 지역은 2년 전 동거하던 남자 친구가 여자친구를 쏘고 자살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비교적 사건 사고가 없는 조용한 지역인 만큼, 주민들도 놀란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권나라 기자

# 교회 바자회 마켓 반찬 취급하시는 분 하속하시는 분 (도매가에 드립니다)

### 취급 품목

\* 플라스틱 그릇 무료 제공합니다.

|      |       |       |     |
|------|-------|-------|-----|
| 오징어젓 | 고추전어  | 연근조림  | 명란젓 |
| 어리굴젓 | 양념계장  | 우렁된장  | 창란젓 |
| 가리비젓 | 양념깻잎  | 냉이된장  | 낙지젓 |
| 황새기젓 | 간장깻잎  | 간장고추  | 조개젓 |
| 더덕무침 | 된장깻잎  | 된장고추  | 갈치젓 |
| 파래무침 | 고추잎무침 | 마늘쫄무침 |     |
| 무말랭이 | 장어구이포 |       |     |

3109 W.Olympic Blvd., #D  
Los Angeles, CA 90006

서광식품  
(213)268-7004

# GOLDEN STATE UNIVERSITY

## School of Oriental Medicine

# 골든 스테이트 한의과 대학

"진인 치유 사색은 기도와 말씀, 의술, 건강교육을 통하며!"

### 가주 한의사 면허 취득반

주정부, 한의보드 정식 인가 학교

- 파격적인 장학금 제도 (유자격자 50%까지)
- 최고의 교수진, 최고의 교육환경 (대학 2년 수료 또는 동등한 학력 소지자)

신입생 모집

### 평생 사회 교육원 운영

누구나 한의를 쉽게 배울수 있는 기회!

한의학 과목 수강시 Credit 인정! (유자격자)  
(한의학 기초반, 진단학 교실, 침구반, 본초교실, 지압, 가공)

편입생 모집

### 중. 장기 선교사 훈련반

양·한방 진단, 영양치료, 경락치료, 운동물리 치료

단기 의료 선교 팀 보조사 훈련  
각 교회 의료 선교 사역팀 훈련 의뢰 받습니다.

### 특혜 1. 일대일 임상지도 2. 취업, 선교지원 3. 자녀관리

9047.E. Florence Ave. #L. Downey, CA 90240  
website : http://goldenstateuniv.us

입학문의 : (562) 622-3368 / gsu\_inc77@yahoo.com

총장 : 김성일 한의학 박사, 여목사

후원 : Holy 의료 교육 선교회, Holy 한방 병원

### 대학 병원 진료 쿠폰

무료진료 상담, 치료비 50%, 유능한 임상 전문의

|         |   |
|---------|---|
| 진/료/과/목 | 부인과 : 생리불순, 경년기 증세, 비만<br>남성과 : 전립선, 스테로이드성 문도, 비만<br>노년과 : 치매 예방 보약, 골다공증 예방 보약, 몸 시림 보약<br>청소년과 : 여드름, 비만, 위염<br>유소아과 : 발육 성장 촉진, 감기 예방, 비만예방 |
|---------|---|

예약 전화 : 562-965-5112



www.MARsLED.net

요한복음 3:16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전기 사용료 50% 이상 절감!

2013년 6월부터 법으로 커머셜빌딩은 LED Light로 교체해야합니다!

### 사장님은 어떤 LED를 선택하시겠습니까?

- 일반 Store에서 구입하여 Warranty없이 LED를 설치하여 사용하시겠습니까?
- 일반 유통업자(Distributor)에게 설치 의뢰하여, 보증 받지 못한 LED를 위험을 감수하며 사용하시겠습니까?
- 저희 Lexell by Mars LEDs는 자체 제조, 제작 및 5년 Warranty를 해드리며, 최고급 LED로 Lifetime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을 빛내드릴 것입니다.

LEXELL by MARS LEDs, INC.

## 바꿔주세요!

불경기를 이겨내자! 지금 내고 계시는 전기 사용료의 50%이상 절감됩니다. 한 번 교체 하시면 20년 이상은 거뜰합니다.



### 일반전구를 LED전구로 바꿔야 하는 중요한 이유!

CFL(형광등전구) 및 백열전구의 유해성  
수은과 납 성분이 들어있다  
유해 전자파를 방출한다, 고열 및 화재의 위험

Vs

LED의 환경친화적 특성  
무수은 광원(RoHS Free), CO2, NO2, SO2 배출량 감소  
유해전자파 미방출, 저전압 사용에 따른 사고 안전성

### Lexell by Mars LEDs, Inc. Benefit

5년간 회사 Warranty! 설치후 문제가 있으면 100% 환불 또는 완벽수리!

Save money

교회, 학교, 빌딩, 상가, 주택, 자동차, 가로등  
신호등, 창고, 주차장, 쇼룸, 주유소, 마켓 등



각 교회마다 전기를 많이 쓰시죠? 교회건물은 원가로 해드립니다.

## 세계 최대의 LED 전구 회사 LEXELL by Mars LEDs 지사모집

저희 LEXELL by Mars LEDs는 LED Manufacture 회사로서 모든 LED 전구를 직접 연구, 디자인 및 제조 생산하는 세계 최대의 LED 전구, 칩 제조 회사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문제인 에너지 고갈로 인해 미국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전기 사용료를 50%-80% 이상 절감 할 수 있는 LED 전구로 교체토록 법으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에 성공하는 사업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유가 시대 아울러 매년 점점 더 심각해지는 이 불경기에 10만불 정도를 투자하여 과연 어떤 사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회사는 여러분의 이런 경제적 고민과 불안을 해소 하실 수 있도록 사업의 기회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각주 및 각 나라 등지에 지사 에이전트를 모집 중입니다. 미국 내에만 100개지사 모집 중이며 이미 28개의 지사가 고효율의 매출을 올리며 성장 중에 영업중입니다. 10만불의 투자로 한달에 10만불 이상의 고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전기 관련에 대해 전혀 모르는 분도 아주 쉽게 운영 하실 수 있도록 본사가 최대한 지원하며 힘을 실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지사 창립에 필요한 금액  
총 \$100,000

1. \$20,000 - 광고비용
2. \$30,000 - 초도 물량 구입비용
3. \$50,000 - 지사 로열티

LED Professional Manufacturer  
Lexell by Mars LEDs, Inc.는  
7만 5천여명이 일하는 세계 최대의 LED 종합전자회사입니다.  
한국인의 힘,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더 큰 미래를 약속드립니다.

LEXELL by MARS LEDs, INC.  
611 S. Catalina St. #207 Los Angeles, CA 90005

e-mail: LEDlightGO@hotmail.com | www.MARsLED.net  
C.E.O. President: Michael Kim(김신형), Cell: (424) 241 - 8281  
Tel. 213-427-9848 Fax. 213-427-9248



# 한인교회 실버 사역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 소극적 사역에서 적극적 사역으로 다각화 되어야

미국 내 인구가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전체 인구의 13% 이상이 노인이며 이는 지난 10년만에 무려 15%나 증가한 수치다. 2차 대전 이후의 베이비부머들이 대거 은퇴 연령에 도달한 것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실제로 65-69세 인구는 2000년 950만명에서 무려 30% 이상 증가해 현재 1천240만명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저출산 현상까지 더해지면 전체 인구의 스펙트럼은 어쩔 수 없이 노인 인구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한인사회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한인사회는 미국사회가 가진 고령화 현상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민자라는 특성상, 성인 자녀들을 따라 이민오는 고령 이민이 계속 이뤄지고 있으며 2세와의 분리 현상까지 겪어 더욱더 급속도로 고령화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성도들이 고령화되는 이 현상을 놓고 교회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단순히 그들이 죽음을 준비하도록 돕는 역할로 만족하고 있는가? 본지는 Grace Silver Ministry Center 대표 최병수 목사와 실버아카데미 대표 박소건 목사, 한술중합보험 대표 황선철 장로와 대담을 통해 한인교회 실버 사역의 방향점을 잡아 본다. 최 목사는 인랜드교회에서 13년간 목회하며 이 교회를 대형교회로 성장시킨 후, 은퇴하고 실버 사역에 전적으로 매진하고 있으며 박 목사는 새순커뮤니티교회를 담임하며 동시에 실버아카데미를 통해 실버 사역을 수행하고 있다. 황 장로는 실버 세대를 대상으로 한 메디케어, 메디칼 세미나를 통해 직접적으로 그들을 섬기고 있다.



Grace Silver Ministry Center 대표 최병수 목사

■ **바야흐로 한인교회에도 전문적인 실버 사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사역에 관심이나 참여도는 낮지 않나 합니다.**

최병수 목사: 제가 각 교회들의 사역 현황을 리서치 해 본 결과, 많은 교회들이 이 사역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참여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었

습니다. 그리고 참여하고 있는 교회 대부분은 '노인대학'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일주일에 하루, 약 6시간 정도의 노인대학에서 예배와 성경공부를 비롯해, 바둑, 컴퓨터, 라인댄스, 체조, 영어와 같은 커리큘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대형교회의 사례도

조사해 봤는데 그 교회는 10년 전부터 노인대학을 운영했지만 여기에도 비슷한 프로그램에 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현실을 보면, 실버 사역이 교회의 전문적인 사역으로 자리잡기 보다는 일종의 부업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전문사역자가 있기보다 타 사역을

버아카데미를 화, 목요일에 열어서 실버 세대가 노년을 보다 즐겁고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버데이케어는 매일 우리가 교통편을 제공하며 주5일동안 진행됩니다. 실버 세대를 본격적으로 돌보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끝으로 양로 사역도 합니다. 이것은 병원이나 양로원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 섬기는

### 노인대학 형식 프로그램이 주류 이뤄 실버 세대 영육 돌보는 목회적 접근 교회 협력 통해 사역 다각화 필요

하고 있는 교역자가 추가적으로 맡아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저는 부모를 공경해야 그 자손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한인교회가 조금 더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박 목사님은 2년 전부터 노인대학인 실버아카데미를 교회에서 운영하고 계신데, 최 목사님의 지적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소건 목사: 아직 한인교회에 실버 사역이 활성화 되지 않은 상황이란 점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역량에 따라 3가지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은 실버 세대라고 다 같은 실버 세대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시작됩니다. 건강 상태가 좋은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이민 온 지 오래된 분도 있고 자녀들과 함께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차이점에 근거해 3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먼저는 실

버아카데미를 화, 목요일에 열어서 실버 세대가 노년을 보다 즐겁고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버데이케어는 매일 우리가 교통편을 제공하며 주5일동안 진행됩니다. 실버 세대를 본격적으로 돌보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끝으로 양로 사역도 합니다. 이것은 병원이나 양로원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 섬기는

■ **실버 사역이 단순히 노인을 돌보는 생각을 넘어 그들을 위한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 저는 이 사역의 필요성을 아는 교회들이 각 교회의 규모와 능력에 맞게 사역을 전문화 하면 어떨까 제 안에 봅니다. 박 목사님의 지적대로 일단은 건강 상태에 따라 사역이 세분화되어야 할텐데, 결국 중소형교회가 이렇게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모두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합쳐 최대한 세분화된 모든 영역에서 실버 사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역이 세분화될

때, 단순히 노후를 즐기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다 유익하게 노후를 영위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향으로 사역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 **게다가 제가 인랜드교회에 사무하던 당시, 실버드림센터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니 전체 참여 인원의 절반은 우리 교회 성도였지만 나머지 절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아직 실버 사역을 체계적으로 못하는 교회가 많으며, 그 사역을 하더라도 모든 영역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각 지역마다 실버 세대의 모임이나 행사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교회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 사역에 헌신하고 있기에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보다 큰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 **교회 외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실버아카데미를 통해 받게 되는 목회적 체험은 어떻습니까?**

■ **박: 우리 실버아카데미는 분명한 교칙 아래 정말 학교처럼 운영됩니다. 조퇴, 지각, 결석 제도가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을 전체 커리큘럼에 따라 수강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 시간이 여유로운 실버 세대들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무료로 시간을 때우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규칙적으로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 옵니다. 여기서 취미 생활이 더해지고 영적 공급이 더해지면서 인생이 성숙,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일에 잠깐 한번으로 그치는 모임으로는 여전히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영적 돌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같습니다.**

■ **또 우리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교단이나 교파, 종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리를 논하지 않고 오로지 말씀과 복음만을 이야기 하기 때문에 참여자들 안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화목하게 되**



한술중합보험 대표 황선철 장로

BAK KUNG

# 白 宮

KOREAN B.B.Q

**백궁은 최상급의 고기와 최고의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                              |                                    |   |                          |
|------------------------------|------------------------------------|---|--------------------------|
| <b>\$9<sup>99</sup></b>      | <b>\$7<sup>99</sup></b>            | <b>\$5<sup>99</sup></b>                         | <b>\$6<sup>99</sup></b>  |
| <b>런치 스페셜</b>                | 매운 소갈비찜 +된장                        | 고등어+된장 이면수+된장 잡채+된장                             | 오징어+된장 김치전골              |
| <b>\$9<sup>99</sup></b>      | <b>\$13<sup>99</sup></b>           | <b>\$16<sup>99</sup></b>                        | <b>\$22<sup>99</sup></b> |
| <b>고기무제한 All You Can Eat</b> | 차돌 소스삼겹살 소불고기 닭불고기 매운양념닭갈비 오징어 찞不理 | 오징어 찞不理 곱창 대창 막창 닭뿔통 매운양념닭갈비                    | 갈비탕 육계장 내장탕              |
| <b>소주 \$6<sup>99</sup></b>   | 소주1병                               | 돼지불살구이 N양념갈비 N생갈비 허밀구이 왕새우구이(2인/10pcs) 스키구이(힘들) | 둘솔비빔밥+된장                 |

3700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19  
**323.734.9292**





한인교회의 실버 사역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 비판이 이 대담을 통해 이뤄졌다.

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전 영리 사업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동기를 부여받은 우리가 실버 세대를 섬기는 귀한 목회적 사역입니다.

-목회적 관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시군요. 그러나 여전히 개교회적으로 볼 때 투자가 잘 안되는 부분이지요? 교회가 무엇을 간파하고 있을까요?

황선철 장로: 요즘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쉬고 놀기보다는 더 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퇴한 후가 더 바쁘다는 분도 있습니다. 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더 바빠졌다는 분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노후도 있고 경제적 능력도 되는데 여행을 다녀도 1,2년이고 쉬어도 하루 이틀이지 그 기간이 지나면 무료해지기 쉽습니다.

저는 교회가 실버 사역에 예산을 늘려서 이런 분들을 돌보는 일에 더욱 나서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역이 전문화되면 지역사회에도 더 크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어린이 사역이나 중장년 사역에는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서 유달리 실버 사역에는 아직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가 실버 사역에 전문성을 띠기 위해,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내는 것이 가능한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자격증을 획득하고 사역자들을 양성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최 목사님 지적대로 교회가 연합하는 일이 선행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 있고 그들의 요구를 읽는 정확한 맞춤형 사역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번 경제 위기로 인해 정부는 노인들에게 투입되어야 할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연방정부 할 것 없이 예산 고갈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한인

노인들이 받게 될 악영향도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 한인교회들이 자칫 소외될 수도 있는 실버 세대를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연합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역을 다각화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실버 사역에 공감하는 교회가 많지만 연합이 이뤄지기 어려운 이유는 교회 간의 알력이나 경쟁심 때문이 아닐까요?

### 실버 세대 요구 읽는 맞춤형 사역해야

#### 과감한 예산 편성과 투자 요구돼

#### 섬김받기보다 섬기는 존재로 변모할 수도

곽: 그 정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될 위험성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주일에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출석하는 각자 교회에 대한 신앙생활을 잘 하시라는 뜻입니다. 교회 간 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다 교회와 성도를 배려하는 마음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최: 저는 실버 사역을 함에 있어서 노하우를 가진 교회들이 타 교회들과 서로의 노하우를 나누며 협력할 길 기대해 봅니다. 현재의 사역에서 더욱 나아가갈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역이 노인대학이라는 한가지 프로그램에 집중돼 있다면, 교회가 연합한 상황에서는 더욱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서로 영역 다툼을 하기보다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버 세대는 지속적으로 섬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일까요? 시각을 바꾸어 오

히려 그들도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최: 저는 현재 교회가 실버 세대를 돌보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것에서 실버 세대를 활용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 장로님이 말씀한대로 현재 은퇴하는 실버 세대는 물러 나서 대접받겠다는 생각보다는 아직도 왕성히 활동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이분들을 적극

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은퇴한 후에 어떻게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젊었을 때 무엇을 더 배우고 익혀서 교회 사역에 나서겠습니까?"란 질문을 교회가 던져 주고 훈련시켜 주어야 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실버 세대, 듣기만 해도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곽: 제가 직접 실버 사역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최 목사님의 지적이 참 훌륭하고 반드시 연구해 보아야 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분들 가운데 은퇴 후에 교회를 위해 적극 봉사할 능력과 건강, 리더십을 갖춘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그분들의 노후를 잘 관리해 드리는 것에 우선점을 두고 이분들을 사역의 장으로까지 이끌어 낼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지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목회 현장에 도입하기에는 적절한 매뉴얼이 없다는 난제가 있습니다.

최: 저는 그래서 실버 미니스트리 사역을 하며 지역교회를 네트워크 해 주고 노인대학을 활성화 하며 동시에 실버 세대를 평신도 사역의 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계획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실질적으로 실버 목회를 담당할 사역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회에 가 보십시오. 모두 함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부흥회에도 참석합니다. 그러나 어린이 예배가 따로 있는 것처럼 실버 예배도 따로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그들에게 맞추어진 설교는 솔직히 실버 세대들에게 약간 거리감있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젊은이들도 자녀들에게 쏟는 만큼의 에너지를 부모 세대에 쏟아 주어야 합니다.

-사역의 방향이 전환됐다면 이제 그것을 활성화할 정보와 재정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할 듯 합니다.

황: 실버 사역의 일부분으로 저는 교회가 실버 사역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창구 역할을 해 줬으면 합니다. 저는 지난 35년간 보훈 관련 일을 하면서 노인들이 자신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메디케어 등 기본적 정보조차 잘 공급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실버 세대를 돌보는 데에 있어서 다양한 건강 정보, 보험 정보, 사회복지 정보 등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는 역할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실버 사역을 위해서는 재정적 능력도 참 중요한데, 저는 현재 교회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는 상호회를 보다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합니다. 한 교회에 노인이 100여명 된다면 이들을 위한 생명보험이나 노후보험의 비용을 교회 혹은 성도들이 나누어 상호 돕는 형식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시에 보험금의 십일조를 교회에 헌금하도록 지정해 놓습니다. 이러면 교회의 면세 혜택을 이용해서 교회와 성도가 모두 득을 봅니다. 그리고 교회 자체적으로 실버 사역을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펀드라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실버 사역에 대해 오늘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교회가 연합한 가운데 보다 전문적 관점에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며, 실버 세대가 복음의 준비된 헌신자로 나설 수 있도록 교회가 연구, 지원해야 한다는 결론이 있습니다.

최: 실버 사역은 한 교회만이 해 내기에 벅찬 사역입니다. 교회 간에 협력이 이뤄져야 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 실버 목회의 성공이라는 혜택을 모두가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연합한 가운데 이 일이 추진되어 지역교회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협력해 개발해 갑시다.

곽: 목회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듯이 실버 목회를 위한 세미나나 연합 운동도 많이 일어나서 한인교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실버 세대를 모으고 일으키는 무브먼트가 일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황: 실버 사역에 대해 교회가 시각과 접근법을 개선한다면, 이들을 귀찮은 존재 혹은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로 묶어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헌신, 봉사하게 하는 일꾼으로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80세의 갈렙처럼 위대한 사역자가 현재의 실버 세대에서도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김준형 기자



실버아카데미 대표 박석건 목사

## 한국어 목회학 박사과정 학생 모집 (2012년도 가을학기)

뉴올리언스 침례신학 대학원 목회학 박사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2012학년도 가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1. 지원 자격**  
M.Div. (목회학 석사) 혹은 이와 동등한 학위 소지자  
M.Div. 취득 후 3년 이상의 사역 경험  
M.Div. 과정 GPA 4.0만점에 3.0이상의 평균학점

**2. 제출 서류 및 마감일**  
제출서류: 입학 원서 패키지는 아래 전화 및 이메일로 요청시 이메일로 발송  
마감일: 2012년 7월 5일  
입학 서류 심사 결과는 개별통지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3. 입학안내**  
유학생에게 1-20발급  
Toefl 불필요  
모든 세미나 및 워크샵은 아틀란타에서 진행

**4. 프로그램 구성**  
워크샵 (3과목 6학점)  
세미나 (6과목 18학점)  
졸업논문 (6학점)

**5. 입학문의**  
목회학 박사과정 Director (이종길 교수): 셀폰 (404)335-8150, 이메일 jglee@nobts.edu  
한국에서 연락처 070-8245-8210  
웹사이트: <http://www.nobts.edu/CME/korean-d.-min.html>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9:45  
2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EM)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 (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한현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예배 6:20

**갈릴리산교회**  
믿음으로 그들을 단자라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강진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갈보리민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EM)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이강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찬양)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00 금요찬양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류준영 담임목사**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오후 1:00 오전 7:00 (토)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윤선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예배 오후 7:30 중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 중등부예배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진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말씀이 살포니 나타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박현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EM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laopendoor.org

**김성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같은말,같은마음,같은뜻으로 같은예배를 맺으라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정우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부 오후 7:30 (화) 2부 오전 6:30 (화-금)  
오전 10:30 (수) 오전 6:30 (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사하는 은혜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 (213) 598-0191

**손병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김요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1부 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박용덕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후 2:30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8:00 **박혜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6:30 (화-금)  
유치,유년부,중고등부 오전 11:30 오전 6:30 (토)

**남가주헬로쉽교회**  
온전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 나아가는 교회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김승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마리 길 선교사**  
수요예배 오후 7: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집회 오후 7:30

**뉴월드임마누엘교회**

1234 W. 7th St., Los Angeles, CA 90017  
T. (909) 993-4842, (909) 993-2157

1부예배 오전 8:00 한이청년부예배 오후 1:00 **최성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EM/Youth예배 오후 12:00 오전 6:00(토)  
AWANA 오후 12: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매일 마지막주)

**늘푸른선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여 일어나라

1250 North Red Gum St., Anaheim, CA 92806  
T. (714) 632-9191, 9192 / missionway.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EM) 오전 9:45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찬송이신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서보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기도회 오후 8:00  
중/고등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청년토요일예배 오후 6:00

**둘로스교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사랑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이성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사랑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손인식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그리스인이다, 내가 그리스인이다, 하나님이 증명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9:00 청년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5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학생예배 오후 12:00

**벤티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김성일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일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한국어 학교 오전 9:30 (토)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재지훈련지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15617 Burwood Rd., Victorville, CA 92394  
T. (760) 220-3263, (760) 542-9366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 교회 및 선교회

**신원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삼성장로교회**  
주님 축복권을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실현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8:0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내가 살구나무의 가치를 보나이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 F. (310) 793-2298

1부예배 오전 7:30 5부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EM예배 오후 12:15  
3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4부예배 오후 12:15 새벽예배 오전 5:45 (화-금) / 6:00 (토)

**세리토스장로교회**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세상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860-5451 / iloveccp.org

**김수철 담임목사**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  
(다문타운 474 Crocker St.)  
1부(가리)예배 오전 7:00  
2부(선데이)예배 오전 9:30

**소중한사람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1856 W. 11th Place,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박상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시온성중양교회**  
은혜, 사랑, 선교로 복음의 빛을 비추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995-2868 / F. (714) 995-0169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조인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EM예배 오전 10:00

**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1부예배 오전 7:45 중등부 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화-금) **지사롬 담임목사**  
오후 7:30 오후 7:30  
(매일 S.D.F. Power minister)

**열방사랑선교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열매로 감동받은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실제, 생명의 사랑과 감동 사역은 주님의 부름을 응답하고 인도하는 선교입니다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예배 오후 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후 1:30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1부예배 오전 8:00 **김혜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30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김세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청년예배 오후 1:45 **박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11:45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7:30 (토)

**임마누엘선교회**  
성령을 따라 (갈5:16)

1818 S. Western Ave., #200, LA, CA 90006  
T. (323) 766-9922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박성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신승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이명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효험, 소, 친 초 정신의 효험, 바른교회인의 효험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충현선교회**  
서로 사랑하라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기쁨과,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성현경 담임목사**  
스페인어 오전 10:00 오후 6:00 (토)  
한국어 오전 10시 (힐로우우드) 수요일예배 오후 7:45  
오후 12:00 (판달)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파사테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나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결혼교실, 시로교실, 부모교실, 아버지교실 **김철민 장로**  
www.GodFamily.com  
www.CMF.M.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김기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25(화-금)  
3부예배 오후 12:00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6:20  
4부예배 오후 2:22

**LA사랑의교회**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386-2233 / F. (213) 386-2243

‘감을 건너 세계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자 **박세록 대표**  
www.samcare.org

**SAM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 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Dealer No. 62655



중고차 황제  
**김기형**  
 213-747-5900  
 714-743-1000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막 9 장 23 절

**\$중고차 고가매입\$**

“기본 **\$700 더** 드리는 헤밀리자동차”

**새차 리스, 중고차 매매**

전차종 All Makes & Models  
**HONDA, TOYOTA, LEXUS, BMW, MBZ**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경매장 안내해 드림



[www.familyauto.us](http://www.familyauto.us)

중고차를 판매하시면 새차는 원가에 뽑아드립니다.



**213-747-5900**  
**714-743-1000**

1230 W.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 2012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시, 안수 가능)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 Fax: 562-926-1025 / www.pts.edu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with the wor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310-793-2285 / Fax: 310-793-2297 / www.cohenuniversity.ac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I-20 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 Fax: 213-381-0010 / www.iruniv.org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e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 Fax: 818-435-2441 / www.myccu.us

**솔로몬대학교**  
 Solomon University, SU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 28:18-20)  
 학위: 신학 학사/석사/박사 (BA, D.Min, Th.D), 교회음악, 문예창작  
 장학금 혜택 총장: 백지영 목사 부총장: Dr. Brent Price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 Fax: 213-487-737 / www.solomonuniv.org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일꾼들을 양성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el: 714-879-7952, 714-393-7952 / hjung3155@gmail.com

**국제비전대학교**  
 정시/수시: (Offline, Online 강의)  
 학위: 학사/석사/박사 (D. Min., D.Miss., Ph. D.)  
 I-20 발행, 각종 장학금 지급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293-5745 / 213-610-4989 / www.vision.edu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 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 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학장: 김영화 목사

2007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1  
 Tel: 213-247-3652 / Fax: 310-609-141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 http://korean.fuller.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A., CA. 90019  
 Tel: 323-731-9819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4055 Wilshire Blvd #419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9-8987

**미주개혁신학대학교**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2706 Wilshire Blvd. 1st Floor, Los Angeles, CA 90057  
 Tel: 213-736-6500 / Fax: 213-736-6504 / reformeduniv.org

**아메리칸 신학대학 및 대학원**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323-732-7356 / Fax: 818-773-8868 / 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하나님 앞에 섰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Tel: 562-869-7497 / www.mcuuniversity.org

**바울성경대학**  
 말씀을 개혁주의 신학안에서 바르고 깊이있게,  
 성경 66권 전체를 공부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언제나, 오실 수 있습니다.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Tel: 562-394-3342 / paulbiblecollege@gmail.com

**윌클리프대학교**  
 Wyclif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는  
 개혁적인 신앙과 바른 성서해석을 가르쳐  
 여두움을 밝히는 지도자, 개혁의 새벽별  
 존 윌클리프 같은 개혁자를 길러낼 것입니다

14631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604  
 Tel: 562-777-7078 / www.wyclifuniversity.net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 www.aeu.org



## RETREAT CENTER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에서!

###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에 관하여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와 미국 국제 선교 센터 (U.S. Center for World Missions)는 1976년 캘리포니아 로버트 워터에 의해 전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깨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전도 종족에게 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파사데나에 위치한 35 에이커의 시설은 활기 넘치는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에는 여러 기관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과, 교제 할 수 있는 공간, 각 그룹마다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시작할 수 있는 선교 전략과 훈련을 위한 공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초청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는 가진 자원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의 첫째 목표가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정은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의 선교 사역에 사용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캠퍼스에서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기를 초청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31년 전통의  
HEALTH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 가정의 달 특별기념 세일!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 HQ 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 8병을 100분에 +tax

고객 상담 후 알파 구연산 섞어 드림  
(알파 구연산 2병 한정)

마감일 5월 31일까지

Made in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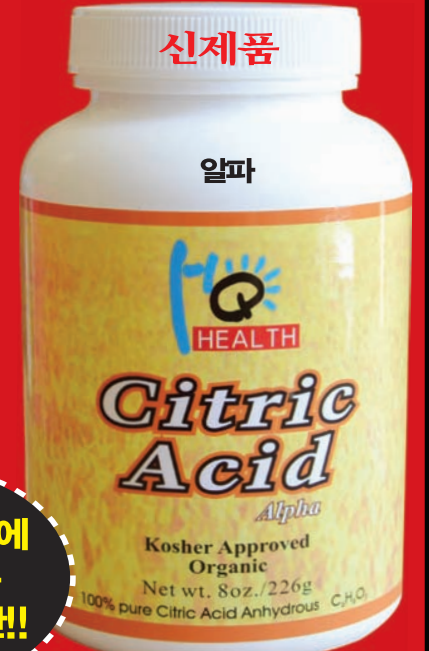
각종 질병 질환에  
이미 검증된  
오리지널 구연산

각종 위장병에  
특히 좋은  
알파 구연산!!



30병/ea + tax

Kosher Approved  
Organic/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50병/ea + tax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100불 이상 구입시에 우선 한 병만 사용해 보세요. 어떤 질병일지라도 한 달 정도면  
효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만일에 본인이 느끼기에 효과가 없다면  
사용하시던 병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가져 오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100% 환불해 드립니다. HQ구연산으로 효과를 못 보신 분들께는  
절대로 돈을 받지 않습니다.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벼워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땀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나옴.
- ★ 검버섯이 구연산 복용 후 한 달이 지나 없어지거나 약해짐.
- ★ 비염,코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나는 다른 제품이 없어도 구연산만 있으면 건강하게 산다.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7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가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당뇨로 앓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 ★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 ★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옴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비염이나 콧물에 고생했는데 구연산 3개월 먹은 후 회복됨.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맛없고 맛있고 맛도 좋음.
- ★ 나물을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출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염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펴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구연산 장기 복용 후 눈의 시력이 몰라보게 좋아짐을 체험.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아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낫고 회복.

수많은 체험사례들이 비디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막힌 체험사례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해 주세요.



###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음식물의 완전 흡수를 도우며 자연치유력에 또한 최대한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인디오텐신이라는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 당뇨병은 인슐린과 그 반대 역할을 하는 효소 간에 밸런스가 깨져 생기는데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히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발목 무릎,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유산이 체내에 축적되고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인체 내 젖산 등의 피로물질을 분해하여 피로회복에 효과적이며 자연치유력을 최대한으로 높여준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며 면역능력을 증진시킨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강한 체질,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 HQ Health, Inc. / HQ 산삼

41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는 의지



김영길 목사  
감사한교회

한 일입니다.) 가정에서 착한 일을 할 때 상대방도 나처럼 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대하면 원망하고 책망하게 됩니다. 사랑의 우물물이 차고 넘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이렇게 선한 일들이 쌓여가면 행복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가족 중에 누군가 좋은 일을 하면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선한 일은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일뿐만 아니라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축복의 말을 할 때에도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에 필요한 모든 선하고 착한 말과 행동은 격려하고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살다 보면 허물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재빨리 그 허물을 덮어 주어야 합니다. 가족 사이에 상처가 있다면 속히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무의식 중에도 허물을 다시 들추거나 상처를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실사, 같은 실수를 다시 저질렀을 경우라도 "당신은(혹은 너는) 항상..."이란 표현을 삼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지하고 자세하게 "관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일이 한창 진행되고 난 후에야 "왜 나에게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하고 묻는 질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행복한 가정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지를 상실한 채 서로를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몇 가지의 중요한 의지를 실천에 옮겨야만 합니다.

먼저 행복한 가정의 그림을 마음 속에 그려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린다 가정해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부부는 대화를 할 때 어떤 얼굴로 서로를 쳐다볼까, 그 주변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은 어떤 모습을 취할까, 행복한 가정의 배경색은 무슨 색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내가 무슨 일부터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부터 시작합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도 선



손인식 목사  
베델한교회

황해도에서 내려온 피난민이었던 제 부친께서 전쟁 후 자리 잡은 천호동은 광나루 바로 북쪽의 높은 아차산 절벽이 한강의 흐름을 가로막는 광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자라난 저는 한강의 흐름이 방향을 바꾸는 그 아차산 높은 절벽의 기억을 항상 뇌리에 담고 있습니다. 저 강원도 산간벽지에서부터 흘러나온 한강물이 평야로

흘러들어 양수리에서 합쳐지고 미사리를 지나 광나루에 이르기 전, 강력히 마주 선 그 절벽 앞에 도달하면 강물은 방향을 바꾸어 뚝섬, 잠실 쪽으로 평야를 덮어가며 도도한 흐름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 넓은 한강 남쪽의 평야를 축축이 적셔 주며 생명을 일으키다가 드디어 한강은 확트인 해방과 자유의 대양으로 강물의 흐름을 넘겨줍니다. 강변에서 성장한 소년답게 제 머릿 속에 담겨 있는 장엄한 한강물의 흐름이 많은 삶의 교훈을 안겨 줍니다.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기도의 흐름도 이와 같은 진리인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강물은 언제나 일직선이 아닙니다. 강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찾아 흐르며 막히는 곳에 이르면 스스로 방향을 바꾸어 평야에 새 물길을 열어 갑니다.

영적인 사람들의 진리도 이와 같아서 신앙의 강물은 교만

을 앞세우는 높은 곳에서 겸손한 낮은 땅으로 흘러들어 가며 세속화된 불신과 자만심의 절벽을 만나면 스스로 방향을 바꾸어 논과 밭의 생명을 키워주도록 평야를 찾아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과 비전을 강바닥으로 삼아 흘러가는 신앙의 강물이요, 기도의 강 흐름입니다.

저는 최근 뉴욕의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며 기도의 물결이 이와 같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들을 깨우며 복한 의 동족들을 살리기 위해 흘러가던 국토기도대장정의 강물이 단단한 절벽 앞에 부딪히면서 어느새 그 물길을 돌리고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오히려 그 기도의 강물은 해외 300인 목사단이라는 평야를 지나게 되었고 세계 51개 도시에서 탈북자 복송 반대의 도도한 강물의 흐름을 계속하면서 탈북자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강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강물은 도도한 흐름이지만 도처에서 바위를 만나고 절벽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막힘 때문에 강물의 방향이 바뀌 때마다 절감하게 되는 것은 기도의 강물은 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평야 지대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마른 영혼이 계속 밀려 들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찾아와 더욱 부흥하고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세계 선교도 그렇습니다. 전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길도 마치 이런 강물의 흐름과 같습니다.

누구도 기도의 강물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강에 그져 배를 띄우고 함께 노를 저어 가 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 은혜를 잊지 않고



고태형 목사  
선천목장교회

얼마 전에 교회의 노인 어른들을 모시고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모두들 아이같이 즐거워 하셨습니다. 김밥을 한 줄씩 손에 들고 버스에 올라 "맛있다! 맛있다!"를 연발하며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로 올라가면서 몬테레이에 들렀습니다. 골프치는 사람들에게 평생소원이라는 페블비치 골프코스 18번 홀에 내려가 마치 골프 시험 걸러리가 된 것처럼 걷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영화의 한 장면 속에 있는 듯 비가 흩날리는 샌프

란시스코 시내 한 복판 언덕을 케이블 전차로 달려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케이블로 전차를 끄는 케이블카에 올라 전차 난간에 매달리기도 하고, 온 몸으로 전차의 브레이크를 잡는 차장을 신기하게 바라보기도 하였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달린 10분 여정의 짧은 시간은 우리를 옛날 서울 거리에서 '땡땡' 소리를 내며 달리던 전차 타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여정 속에 있을 수 없는 감동을 준 한 부부가 계셨습니다. 여행 내내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다니고 식사 때면 앞에 앉아 반찬을 챙겨주던 할아버지입니다. 팔십 되신 아내에게 치매 기운이 있어 모든 것을 혼자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2년, 옆에서 돌보시다가 아내에게 좋은 구경을 시켜 주겠다고 결단하고 여행길에 나선 어른입니다.

제가 여쭙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편찮으신 분을 이렇게 잘 모시고 다니십니까?" 그 어른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조강지처 아닙니까!" 지당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짧지만 아주 감동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그 두 분을 보면서 미국에까지 "Please, Look After Mom"이란 제목으로 번역되어 미국 독자들에게도 호평 받던 신경숙 씨의 장편 소설 "엄마를 부탁해"의 줄거리가 생각났습니다. 이 소설은 "엄마를 잃어 버린 지 일주일째다"로 시작합니다. 시골에 사시던 아버지, 어머니 내외분이 4남매가 사는 서울에 기차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로 같이탈 때 평생 동안 늘 앞장서서 가시던 아버지는 지하철에 올라왔지만 어머니는 함께 오르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의 무관심 속에 치매증상을 앓던 엄마는 그 길로 실종됩니다. 온 집안 식구가 벽보를 붙이고, 전단을 나누고, 병원을 찾아다니고, 비슷한 분을 보았다는 곳마다 방문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안타까운 사연들이 계속됩니다.

소설을 읽어 가노라면 가족들은 엄마를 실제로 잃어버리기 이전에 이미 엄마를 거의 잊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소설은 "힘든 현실을 살아가

기 때문"이라고 자위하며 부모님의 사랑과 노고를 잊어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요즘 한국과 미국에 치매로 고생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치매환자로 인해 고통당하고 힘들어 하는 가족들의 이야기는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간의 아름답고 즐거운 기억들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족끼리 만들 수 있는 좋은 추억 안 늘 앞장서서 가시던 아버지는 지하철에 올라왔지만 어머니는 함께 오르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의 무관심 속에 치매증상을 앓던 엄마는 그 길로 실종됩니다. 온 집안 식구가 벽보를 붙이고, 전단을 나누고, 병원을 찾아다니고, 비슷한 분을 보았다는 곳마다 방문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안타까운 사연들이 계속됩니다.

소설을 읽어 가노라면 가족들은 엄마를 실제로 잃어버리기 이전에 이미 엄마를 거의 잊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소설은 "힘든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자위하며 부모님의 사랑과 노고를 잊어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요즘 한국과 미국에 치매로 고생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치매환자로 인해 고통당하고 힘들어 하는 가족들의 이야기는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간의 아름답고 즐거운 기억들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족끼리 만들 수 있는 좋은 추억 안 늘 앞장서서 가시던 아버지는 지하철에 올라왔지만 어머니는 함께 오르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의 무관심 속에 치매증상을 앓던 엄마는 그 길로 실종됩니다. 온 집안 식구가 벽보를 붙이고, 전단을 나누고, 병원을 찾아다니고, 비슷한 분을 보았다는 곳마다 방문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안타까운 사연들이 계속됩니다.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맹

지사망 :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드,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팩스 : (718) 228 - 9506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여드름, 성공률 99%

효과 없을시 100% 환불

몸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첫상담 무료!**

## 경산 한의과병원

KYUNG SAN ACUPUNCTURE CLINIC

원장 류재규

경산 한의과 대학 교수

Tel: 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삼호관광 물 2층) LA, CA 90006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



한 의준 목사  
남가주주님의교회

한 마을에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스런 자녀를 둔 화가가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날 그림의 소재를 찾아 가족을 남겨 두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뜨거운 햇살에 몸이 지칠 무렵 그는 예쁜 집 앞에서 있는 것 같은 신혼부부를 만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

이 무엇입니까?"하고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신부는 얼굴을 붉히면서 "그야 물론 사랑이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화가는 즉시 그 신부의 얼굴과 그 얼굴에 빛나는 사랑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길을 떠나 한참을 걸다 가 그는 피곤에 지친 몸으로 이제 막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군인을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였고, 기력을 잃고 급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군인은 화가의 물음에 지체하지 않고 "평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순간 화가의 머릿 속에 무서운 싸움터가 곡식이 누렇게 익은 밭으로 변하고, 농부들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추수하는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감흥이 사라질새라 곧 붓을 들어 그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그는 자기

가 생각했던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몸도 마음도 지치고 실망한 화가는 자신의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 왔습니다.

저만치 집이 보이는 길목에 들어섰을 때, 그의 어린 자녀가 달려와 두 팔로 그의 목을 끌어안고 반겨 주었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섰을 때는 그의 아내가 따뜻한 웃음으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식탁에 둘러앉아 남편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마친 아내의 얼굴에는 사랑과 신뢰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는 마음 속으로 외쳤습니다. "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가 그 그림에 붙인 제목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이런 사랑이 머무는 곳이며, 그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사는 공동체입니다. 가족을 뜻하는 영어 단어 family입니다. 이 말은, Father And Mother, I Love You의 첫 글자들을 따서 만든 것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사랑이 머물고, 사랑이 생성되고, 사랑이 누리지며,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미리 맛보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사회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고,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 생활도 행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모든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행복이 활짝 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성도의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분별력



김 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낮과 밤기온의 편차가 심해지니 밤에는 겨울옷, 낮에는 여름옷을 챙겨 입는 기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4계절이 분명한 한국이었지만, 지금은 계절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옷차림에도 여름옷과 겨울옷이 함께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날씨에 대한 감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도 씨뿌리며, 모심기를 해야 하는 시기를 잡는 것이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두달간의 안식월 마지막 기간을 서울에서 보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날 서울의 모습은 마치 꽃밭을 연상케 했습니다. 여의도와 강남으로 가는 길은 흰색과 분홍색의 벚꽃이 만개하여 도심이 꽃 속에 존재하는지, 꽃이 도심 속에 존재하는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를 태우고 가던 버스의 기사님은 벚꽃이 만개한지 2,3일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참 좋을 때 서울에 왔다는 것을 부각시켜 주었습니다. 적어도 두 주 정도는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친절한 안내까지 덧붙이며 화창한 서울의 봄날에 대한 저의 기대감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의 기대는 이틀을 가지 않았습다. 봄의 향취를 시기라도 하는 듯 차가운 비바람이 갓 피어난 꽃망울을 떨어뜨렸고, 기온은 초겨울 처럼 하강했습니다. 바로 이를 전까지 가벼운 옷차림으로 봄기운을 즐기던 사람들은 두터운 의투를 꺼내 입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친 후 기온은 다시금 급상승하여 마치 초여름을 방불케 하는 날씨로 급변해 버렸습니다.

예로부터 4월은 봄의 계절이라 했습니다. 만물을 약동시키는 따스한 봄.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봄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이 4월까지 연장되었고, 그러다가 바로 여름으로 접어드는 이상 기온이 몇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은 10월까지 이어지다가 가을을 지나쳐 바로 차가운 겨울로 계절이 바뀌는 이상 기온. 아마도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 여겨집니다. 문제는 봄과 가을이 실종되어 가면서 사람들의 생활패턴

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낮과 밤기온의 편차가 심해지니 밤에는 겨울옷, 낮에는 여름옷을 챙겨 입는 기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4계절이 분명한 한국이었지만, 지금은 계절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옷차림에도 여름옷과 겨울옷이 함께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날씨에 대한 감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도 씨뿌리며, 모심기를 해야 하는 시기를 잡는 것이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당연히 찾아올 줄 알았던 계절이 실종되니 한국은 헛갈림 현상에 빠져들고 있는 양상입니다. 항상 그럴 것이라는 개념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양상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천년 동안 분명했던 4계절의 패턴이 2계절의 형태로 바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용이 불분명하다면 한국은 상당기간 혼란스러움으로 갈팡질팡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든 바뀌어 갑니다. 그 변화는 긍정적인 수도 있고 부정적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뀌는 것을 막아 보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것은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바뀌는 시대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입니다. 시대가 바뀌는 것에 바르게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개념입니다. 개념을 빨리 정립시키는 것이 바뀌는 시대에 대한 가장 올바른 대처방법입니다. 성경은 분별을 강조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

고(빌립보서 1:10)" 분별이란 개념정립을 뜻합니다.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보다 세상의 흐름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약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판단하여 이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는 개념정립이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할 때 갈팡질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 시대는 혼미스럽기 그지 없습다. 문제는 봄과 가을이 실종되어 가면서 사람들의 생활패턴

### 영적 용광로 오렌지카운티



엄 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교회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살고 있는 오렌지카운티가 살기 좋은 동네라는 것은 이미 정평이 나 있다. 주거환경이 좋고 교육환경이 좋고 무엇보다도 세계적으로 드물게 좋은 날씨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조차 오렌지카운티에 자녀들을 유학 보내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주거환경, 교육환경, 날씨보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의 영적 환경이다. 미국 전체로 보아 인구나 면적에서 그리 넓지 않은 지역임에도 미국과 세계에 영향을 주는 영적인 운동

이 이곳에서 많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 간 이곳에 있는 새 들백교회의 리 워렌 목사를 중심으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가 미국은 물론 온 세계 교회에 영향을 주었고 리 워렌 목사는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 때 기도를 하기도 했다.

최근 존 웨버 목사에 대한 글을 읽었다. 예나하임에 있었던 빈야드교회의 담임이었는데 세계적인 찬양과 기도는사운동을 하다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소천하신 분이였다. 그래서 그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 자료를 찾아 보았는데 마침 유튜브에 그 분이 전성기 때 했던 세미나의 동영상 그대로 남아 있었다.

30년 전 쯤에 했던 세미나인데 마치 지금 이 순간 어느 곳에 선가 하고 있는 세미나처럼 생생하게 다가왔다. 막연하게 조금은 이단시 했던 선입관을 가졌던 것이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로 진솔하고 살아있는 강의였다.

그리고 웨버 목사의 강의 중에 빈야드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된 계기에 로니 프리

스비라는 한 괴짜 젊은이의 역할이 컸다는 얘기를 듣고 로니 프리스비에 대한 자료를 찾아 보았다. 그랬더니 정말 아주 의외의 인물이 등장했다.

로니 프리스비는 본래 오렌지 카운티에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 가정환경이 좋지 않아 집을 떠나 방랑하다가 당시 유행하던 히피 문화에 몰리게 되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시절 교회에서 받은 믿음이 다시 회복되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함께 생활하던 히피들을 전도하여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 시작한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고향 오렌지카운티로 내려온다.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것이 돋이 없는 그가 지나가는 차를 얻어타고 오는 중에 마침 이 곳으로 오고 있던 척 스미스 목사의 아들의 차를 타게 된다. 차 안에서 자신에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 이상한 모습의 젊은 사람을 보고 감동한 척 스미스 목사의 아들은 그를 아버지에게 소개하고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다.

로니를 통해 수많은 히피족들은 물론 청소년들이 몰릴 듯

예수를 믿기 시작하게 되고 몰릴 듯 쏟아져 들어오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다 세례를 줄 수 없어 수천명의 사람들에게 태평양 바다에서 세례를 주는 진기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고 이런 놀라운 현상은 주류 언론에 '예수력'이라는 이름으로 대서특필되었다. 이를 계기로 갈보리채플 교회들이 전 미국과 세계에 생겨났다.

그리고 이 운동이 조금 시들해질 즈음에 우연히 존 웨버와 로니 프리스비가 만나 다시 빈야드 운동을 일으켜 또 한번 세계를 뒤흔들게 되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엄청난 부흥의 핵이었던 로니가 1993년 아직 젊은 나이에 에이즈로 사망한 사실이다. 그리고 몇 년 후 웨버 목사도 아직은 젊은 나이에 죽었다.

그러나 이들이 남긴 그 영적인 유산은 시들어 가던 미국과 유럽 그리고 전세계 교회에 적지 않은 영적인 영향을 미친다.

웨버 목사와 로니의 설교를 들으면 우리에게도 친근한 오렌지카운티의 지명들이 수시로 등장한다. 이런 특별한 은혜의 장소에 살아가는 것이 큰 축복이요 사명이 아닐 수 없다.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최저 1¢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 복사기 무료

칼라 카피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www.fbmcopiers.com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743-10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당뇨에는 동의 당뇨환**

동의 당뇨환을 복용하는 순간부터 그 효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징

1. 100% 순수 한약재로 되었음
2. 식사가 어느정도 완화됩니다.
3. 피가 청결해져서 최대한의 합병이 억제됨
4. 식후에만 삼회 복용합니다.
5. 당 수치가 조절됨에 따라 동의당뇨환의 복용량을 줄여가다가 끊을 수 있습니다.

실로암 한의원 2621 W. Olympic Bl #202 LA CA 90006 213-427-0036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inex AUTO COLLISION CENTER**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8F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사고 판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지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금 매입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마케팅 Gondolas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라짐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liff Ave. Lancaster, CA 93535

**한방 감기약**

자연생약으로 모든 감기에 99%효과!  
감기 종류에 맞춘 순수 한방 조제약! (\$20~\$30)

**새빛 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703-5216

**황씨 냉동. 에어컨. 히팅**

신속, 정확, 저렴 전지역 가능, 24시간 대기

상업용: 마켓 식당 리프, 냉동냉장, 웨어하우스 교회 센츨럴 A/C, Walk-in 냉장, 냉동설치 및 수리, Ice Cream 머신수리  
가정용: LG벽걸이 A/C설치 수리, 하우스 아파트 센츨럴 A/C 냉장고, 설치 및 수리

(213)220-7131 (626)807-8799

**Kate Cho**

헤어디자이너 케이트 조

Man's cut \$10.00 Women's cut \$20.00  
영양염, 윌빙염, 아재염 \$50.00 아이라이트, 코팅, 염색 \$50.00  
매직 스트레이트 펠 \$80.00

반드시/꼭 예약 필수!! 213.505.5756  
450 S. Western #101, Los Angeles, CA 90004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스탠포드 대학교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편강환**

30여개국 해외진출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탠포드대학 (부속) 편강환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면도바르기도하는 알로에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성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최고가 현금매입

**금 삽니다**

10K, 14K, 18K, 금, 은수저 등 (무료출장매입)

LA: 213-407-8759 / Other: 714-293-9701

**비영리단체 설립 및 면세허가**  
(교회, 선교단체 등)

- 처리경험 풍부 www.UsCpaLegal.com
- 비영리단체 세무상담, 장부정리(Quick Book), Tax 보고
- 일반 영리 사업체 설립 및 각종 세무보고
- IRS, EDD, FTB 등 세무감사 수감

Kim & Accountancy Tel. 714-226-0900

sasaferterschool.blogspot.com

믿고 맡기세요. 아이들의 성적이 달라집니다 K~6

Math English E.S.L Writing Bookclub

**APPLE TREE ACADEMY**

Pick up, 전담한 선생과 함께 학교공부 준비를 100% 도와 드립니다.

213.507.5045

**가디언 컴퓨터 수리**

213-663-8007 213-536-4696

317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밑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참숯 (바베큐용)
- 각종 Tea (커피, 동글레, 홍차, 녹차 등)

818-306-7652

Value Windows & Doors

**이중창문교체전문**

7월 세일

햇빛차단 Low-E3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그레이스 최 최추신경 한방병원

www.herbsabu.com

726 S. Wilton Pl, #2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1-8228

금연클리닉 스페셜 \$200 (당문 때까지 치료)

귀국 자동차운송 **업계최저 \$950**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www.easy2424.com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전문 제작 전통 모터 시스템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TEL.(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홈 페이지 제작**

제작비용 걱정, 이제 그만! \$499

저렴하고 빠르게 제작

풍부한 제작경험을 토대로 정성껏 제작해드립니다.

제작문의 213.364.2124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 외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도네이션 클리닉으로 지역사회 봉사하며 선교

어깨통증과 감기 그리스도 사랑으로 진료

[인터뷰] 새빛한의원 이은숙 원장



LA 한인타운 중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복하게 의술을 펼치는 한방 여의사가 있다. 이은숙 원장(새빛한의원)은 10여년간 중국 유학(북경중의약대학 졸업)을 통해 한방내과(고혈압, 당뇨, 위궤양, 두통, 불면증, 어지러움, 천식, 변비, 전립선비대), 부인과(요실금, 갱년기종합증, 산후병) 질환은 물론 급·만성통증(요통, 관절염, 좌골신경통, 대상포진, 오십견) 치료까지 섭렵했다. 또 항암치료 과정 중에 겪는 심한 구토감과 전신무력증 등을 양·한방 결합치료를 통해 고통을 경감시켜 항암치료 기간 중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방보조요법에 풍부한 경험도 갖고 있다.

-최근까지 감기 걸린 사람들이 많았다. 내방하는 환자들은 어떠한가.

한의원에는 통증 환자가 가장 많다. 최근 2~3년 사이에 극심한 불경기로 인해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심한 편두통과 가슴의 답답함, 그리고 불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증상을 가볍게 생각해 진통제와 불면증 약으로 임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킨다. 이는 일시적인 효과는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아니다. 위의 증상들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근무환경이 주원인이 되거나 평소의 앉고 눕는 자세가 바르지 못해 어깨근육이 목에 뭉치면서 생긴다.

특히 편두통, 어깨통증은 초기에 바로 치료를 하게 되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심장과 소화기계통까지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편두통의 경우 어떠한가.

일반적으로 편두통은 양방

진찰을 받게 되면 주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원인은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보는데, 외적인 요인으로 평소 생활환경 조건이나 몸의 자세가 경락상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내적 요인으로는 장부(오장육부)의 불균형과 스트레스라고 본다.

과로로 인한 목 근육의 긴장이 양어깨의 경락에 순환장애를 일으키면서 위로는 머리로 올라가 편두통을 일으키고 아래로는 어깨와 가슴, 위까지 불편함을 준다. 단순한 스트레스가 주원인이 아니다.

오랜 기간 동안 목의 불편함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엔 편두통뿐만 아니라 심장까지 무리를 줘 후천성 심장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어린이들이 특히 감기에 잘 걸린다. 이유는.

평소 편식을 하는 어린이들은 영양상태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체내의 저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외부에서 체내로 들어오는 사기(감기 바이러스)를 저항할 힘이 없기 때문에 찬바람(찬 공기)에 쉽게 몸이 노출되어 사시사철 감기를 달고 살게 되는 것이다.

어린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화기계통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화력이 뛰어난 어린이는 체력이 강해 자연히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병원균에도 뛰어난 저항력을 발휘한다. 어린이 성장기의 가장 기본은 위장을 튼튼하게 해 주는 것이다. 위가 튼튼해져 식사 시간이 즐거워지고, 매번 식사

기간마다 부모의 마음을 애태우는 어린이의 편식도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우리 병원에서 짓는 '위트튼 성장탕'을 통해 식사시간이 즐거워지면서 부모의 고민과 수고가 덜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잦은 소화 감기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다.

-도네이션 클리닉을 운영한다고 들었다. 발상이 참신하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한 부모 밑에서 나온 자녀만이 형제자매가 아니라 인간은 모두 한 피가 흐르는 형제다. 어느날 기도 속에서 우러나왔다. 형제자매를 위해서 내 육신만 조금 힘들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이다. 그래서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환자 중에 젊은층과 노년층 골고루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도네이션 클리닉을 오픈했다.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진료해 드리고 도네이션을 받는 것이다. 받은 도네이션은 전액 교회에 헌금한다. 나의 진료 철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자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한다. 절대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중국의 제일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의술을 펼친다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환자를 마음의 눈으로 보고 치료를 하고 있어서 그만큼 빨리 낫는다.

-앞으로 계획과 비전은.

양방은 양방대로 한방은 한방대로 장점이 있다. 두 의학을 결합해서 치료했을 때 회복이 기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가지 비전이 있다면 양·한방 종합병원을 세워서 서로 다른 학문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환자의 치료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문의) 323-735-6365 토마스 맹 기자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진짜 행복

[인터뷰] 스튜디오 봄 스카이 엠 대표

요즘 세상을 일컬어 각박하다고 흔히들 이야기 한다. 현대의 비극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지 않고 더 움켜 쥐려고 하는 데에 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가 나날이 커지는 이유는 가진 자들이 나누지 못하는 인색함 때문이라는 것이 얼마 전 한 통계에서 나왔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러리는 소망이 있었던 한 소년이 이제 성인이 돼서 꿈을 하나씩 이뤄가고 있다. 스튜디오 봄(Studio Bom)의 스카이 엠(Sky Yeum) 집사(벨리한인연합교회)는 5년 전부터 노인에게 영정사진을 찍어주는 봉사를 하면서 작게나마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현지에서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사진을 찍은 지 얼마나 됐나.

20년이 넘었다. 처음에 샌프란시스코에 유학을 와서 미국에 살겠다고 결정하고 2002년에 LA로 내려왔다. 이곳에서 패션 자바 분야에서 일을 하고 웨딩사진 전문 업체 '스튜디오 봄'을 오픈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영정사진을 찍어주고 있다고 들었다. 계기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나눠주겠다는 생각을 했다. 사진을 배우고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도움을 줄만한 것들을 찾은 결과, 스튜디오에서 손님들에게 폴라로이드(Polaroid) 사진을 자유롭게 찍게 하고 장당 1불씩 받아도 금액을 유니세프에 보내곤 했다. 4~5년 전부터 노인들에게 영정사진을 찍어주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웨스턴양로병원을 시작으로 개교화도 다녔다.

-신앙은 언제부터.

6~7년 전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 신앙 초기에 직업 특성상 주말에 일이 많다 보니 마음이 있었지만 예배에 못 나갈 때가 많았다. 주로 예배를 가도 사진을 찍으러 가는 일이 많았다. 거의 선데이 크리스천이었다. 본격적으로 2년 전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닿기 시작했는데, 영정사진을 생각하게 된 계기도 그 무렵이었다.

교회에서 영성아트를 하고 있다. 미술과 인테리어, 사진하는 멤버들이 의기투합해서 어떤 것을

만들 때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모임이다. 전시회를 열면 교회 아이들이나 교인들을 동참케 해 체험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을 찍은 지 얼마나 됐나.

20년이 넘었다. 처음에 샌프란시스코에 유학을 와서 미국에 살겠다고 결정하고 2002년에 LA로 내려왔다. 이곳에서 패션 자바 분야에서 일을 하고 웨딩사진 전문 업체 '스튜디오 봄'을 오픈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영정사진을 찍어주고 있다고 들었다. 계기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나눠주겠다는 생각을 했다. 사진을 배우고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도움을 줄만한 것들을 찾은 결과, 스튜디오에서 손님들에게 폴라로이드(Polaroid) 사진을 자유롭게 찍게 하고 장당 1불씩 받아도 금액을 유니세프에 보내곤 했다. 4~5년 전부터 노인들에게 영정사진을 찍어주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웨스턴양로병원을 시작으로 개교화도 다녔다.

보통 12월 초에 진행하는데 양로병원에서 할 때 매개는 100분이 넘게 참여했다. 교회에서 진행하면 50분 이상이 참여했다. 대상자는 주로 65세 이상인데 영정사진은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봉사를 하면서 보람되는 일은.

바쁜 이민생활 중에서 영정사



스카이 엠 집사는 자신이 가진 달란트로 섬기고 봉사하는 꿈많은 그리스도인이다.

진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다. 어떤 분은 사진을 찍은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소천하셔서 교회로부터 사진을 더 크게 해 달라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 지난해에는 LA시로부터 공로 증서를 받기도 했다.

-앞으로 계획이나 구상하는 바는?

아직 구체적인 단계는 아니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해서 이곳의 조그만 교회에서라도 전시회를 개최해 관람객들에게 영어로서 도네이션을 받고 싶다.

그래서 모아진 책을 아프리카 현지에 보내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싶은 소망이 있다. 아이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씨앗을 마련해 주고 싶다.

문의) studiobomus@gmail.com 토마스 맹 기자

고화질 예배방송 비용 파격적 절감하려면

레이저비전 무료영상음향세미나 개최

그동안 무료영상음향세미나를 통해 한인교회를 적극 섬겨온 레이저비전이 오는 6월 4일과 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당사 사무실(1961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에서 고화질 예배 방송을 위한 무료 세미나를 연다.

근래 인터넷 방송의 품질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각 교회들도 인터넷을 통해 예배 실황을 전세계에 방송하고 있다. 그런데 높아지기만 하는 시청자들의 수준을 따

라가기 위해 방송 시스템을 바꾸다 보면 적어도 수만불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망설일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레이저비전은 저렴한 비용으로 고화질 예배 방송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이 세미나에서 소개해 한인교회들의 요구에 부응할 예정이다. 이 솔루션을 이용할 경우, 기존의 수만불 대의 설치, 운영 비용이 수천불 대로 낮아질 수 있다.

카메라까지 모두 이 시스템에서 호환, 지원되므로, 현재 교회가 기존에 구매하고 있는 장비들을 최대한 활용해 불필요한 추가 재정 지출도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교회가 직접 구매 사용하기에는 적지 않은 전문적 지식과 에너지가 소모되기에 이번엔 레이저 비전이 특별히 무료 세미나를 열고 교회의 방송 사역을 돕는 것이다.

문의) 323-730-5050 빅터 박 기자

**iTalkBB** 로컬/장거리/국제전화 무제한

우리 가족은 아이토크비비로 통한다!

아이토크비비로 통신요금 절약!

**\$9.99** /월

글로벌 플랜 ~~\$24.99~~

기타 수수료 포함 (첫 3개월간, 이후 \$24.99/월)

행사기간 2012년 5월 15일 까지

글로벌 플러스 플랜 Global Unlimited Plus Plan

한국인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플랜

글로벌 플랜의 모든 혜택은 기본 ~~\$34.99~~ **\$14.99** /월

기타 수수료 포함 (첫 3개월간, 이후 \$34.99/월)

무료 부가서비스

070 마이코리아번호\*\* 한국 070전화 필요없다! 한국 전화번호 제공

아이토크글로벌 매일 500분 전화 카드가 필요없다! 내 휴대전화로 국제 전화를

로컬, 장거리, 한국 포함 27개국 국제전화 무제한

[30일 환불 보장] [디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아이토크비비 1.800.872.2902 자세한 내용은 www.Korea.iTalkBB.com 에서 확인해주세요

1.800.875.8318

고객상담시간 : 365일 오전 6시 ~ 저녁 10시 30분 (PST)

지금 Facebook.com/iTalkBBKorea를 방문하셔서 아이토크비비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얻으세요.

아이토크비비 공인 가입센터 모집

한인타운 내 매장을 보유하고 계신분 또는 전화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가입센터 상담전화 : 703.348.7544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할인 이벤트 - 프로모션 기간 첫 3개월을 포함해 총 15개월의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은 행사기간 내 글로벌플랜 또는 글로벌 플러스 플랜에 가입한 신규 고객에 한합니다. 계약기간 내 서비스를 약정하는 경우, \$69.99의 위약금 및 프로모션 기간 동안 할인된 통신 요금에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계약서는 iTalk Global Communications, Inc. 에 있습니다. \*\* 무료 부가서비스 마이코리아번호를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요금이 청구되거나 취소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고속 인터넷 가입자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 품질이 다소 저하될 수 있습니다. 30일 환불 보장 기간 이후 서비스 예치시 어떤 납부한 금액이라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무제한 플랜 가입자에게는 개별비 (29.99)가 부과됩니다. 무제한 플랜이 가능한 국가 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외의 다른 국가는 지역별 유선전화는 포함되지 않으며, Puerto Rico, Guam, US Virgin Islands 등 미국 영토 및 영토외의 유선전화는 무제한 플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Korea.iTalkBB.com을 참조하거나 고객 상담센터 1-800-872-290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아이토크비비 아이스크림에는 환경보호를 위해 종이 봉투 대신 재활용 가능한 종이 카드 걸이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2012 최신행 EQUUS

8 스피드의 넘치는 힘과  
럭셔리한 중후함을 느껴보세요

**599+TAX** (STK:052436)

Closed and lease 48 month plus tax  
MSRP: \$59,650 Residual : \$29,228.5  
T.D.O: \$4,995 No Security Deposit  
For 12k Per Year  
Plus College Rebate, Military Rebate,  
Comp. Coupon  
(O.A.C)



800대를 수용하는 에쿠스를 가장 많이 보유한 북미 NO.1 현대딜러



## 2012 Sonata GLS

EPA 기준 대형차급 실내공간  
2011년 정부 안전기준 별 5개를 획득한 최초의 중형세단

**165+TAX** (STK:503039)

Closed and lease 48 month plus tax  
MSRP : \$22,065 Residual : \$11,033  
T.D.O : \$2,299 No Security Deposit  
For 12k Per Year  
Plus College Rebate , Military Rebate, Valued owner Rebate  
(O.A.C)



**5월 한달간 무이자(0%)에 \$500을 더 드립니다.**

## 5월 한달 푸엔테힐스 현대가 드리는 혜택

(행사기간 2012년 5월1일~31일)

1. 구입하는 모든분들께 유명 골프장에서 4분이 무료 라운딩 할 수 있는 티켓을 드립니다. 
2. 평생 카워시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Fleet Manager  
찰리 정  
213.276.8959



Sales  
스티브 장  
213.235.6825



Customer Care  
제니 김  
310.749.7599



Sales  
매튜 김  
714.797.3571



WWW.PHHYUNDAI.COM  
1-888-212-6431

LA한인타운과 오렌지 카운티에서 20분거리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s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